브라질 이민 노령자에 대한 교회의 역할

A STUDY ON THE ROLE OF THE CHURCH FOR THE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BRAZIL FOCUSING ON THE SAE SOMANG CHURCH

By

Han, Hong Kuk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Sao Paulo, Brazil

2010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브라질 이민 노령자에 대한 교회의 역할

A STUDY ON THE ROLE OF THE CHURCH FOR THE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BRAZIL FOCUSING ON THE SAE SOMANG CHURCH

presented by

Han, Hong Kuk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____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____
Academic Dean's Signature

May 2010

ABSTRACT

A STUDY ON THE ROLE OF THE CHURCH FOR THE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BRAZIL

By

Han, Hong Kuk

The issue of society's aging has become so unstoppable that it has become major problem around the world. Our country, also, has this matter and it should be solved actively. The 2007's statistic says that the average Korean women's lives bear 82.7 years and men 76.1 years, dramatically increasing the lives of the people. While, the birth rate, according to the survey in 2009, has marked the lowest rank with only 1.08. Therefore, while the birth rate decreases, the length of life lengthens, making the population of aged people cover 10% in 2008 and maybe 20% in 2026, causing our society to become old. As a result, the concerns of old people turn out to be social concerns in aging society.

In Korean society of Brazil also aging has become very serious matter as an immigrant world. The population of Korean immigrants was drastically increasing until 1990, but when people stopped coming, the ratio of the immigrant's population started to lose balance. Brazil's society is becoming aged automatically. The consulate general's statistic proves that people over 60 years of age have surpassed 10.2% in 1997, and in 2015, people over 60 years are expected to exceed 20% of the population in Brazil, making the country become just like ours.

Considering these aspects we recognize the need to deal with issue associated with seniors. However coping and recognizing the old as an official concern and immigrant community is a very difficult issue. It's because most of the immigrants have not abandoned their Korean nationality. In other words, most of

them are Korea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s difficult to expect welfare of the aged from the Government of Brazil. Of course, since Brazil's government's level of welfare of the aged is extremely low, it is hard to expect much from them even by becoming a Brazilian citizen.

Given this reality, Korean Churches in Brazil should feel the need to have active interest in welfare of the aged for Korean-Brazilian elderly immigrants.

Therefore I look to New Hope Church in Sao Paulo establishing a school for Elderly Koreans to actively solve the matter of welfare of the aged to perform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hurch for society.

Before performing the New Hope Church's school for welfare of the aged in order to solve Korean-Brazilian Elderly matters, it'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Biblical understanding, theological, soci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elderly.

Theologically, the old were created in a form of God. For them, created in God's form, Jesus came down to earth in a human-form. As it is, the old created in the likeness of God are destined to be loved. Therefore it is churches' role and mission to look after the old loved by God, and help to solve their difficulties of their lives.

The old created in shape of God are members of the holy church community. There are no less or more special parts in our body. All parts are specia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churches to respect and take care of the old people, considered as one of church community members, with love and help when they're under hardships and loneliness.

Also the Bible states that the old possess wisdom of God. The wisdoms of the old people are valuable assets gained through their life. The churches should use the assets of their wisdom to expose God's good will on earth.

How does the Bible understand the old? It states that they should be

respected, and that it is honor, joy, and blessing to have become one of them. On the other hand, the Bible also states that since they're physically weak, they are ones to be taken care of through us.

Such old people also have demands for themselves socially. They want to provide beneficial action in society and want to be recognized. They would like to have their spare time to be used for good so they could feel worthwhile of it. They prefer to stay healthy. Also they try to express themselves in any way to taste the sense of accomplishment while enjoying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a loving family and wants soci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Having interests for old people for their welfare is God's command and an important mission of the church. The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is to proclaim the Gospel, communicate, and serve others. Therefore, concerning for their care is to perform the mission of serving towards society. Unfortunately Churches in Korea or the Korean Churches in Brazil don't have enough interests in this kind of mission. In this reality, it is quite significant for Korean New Hope Church's deep concern and understanding for aged society, that they've planned to enforce the New Hope Welfare School for the aged.

In order to proceed the plan of the New Hope Welfare School for the aged, they took a survey toward Korean Elders in Saul Paulo to figure out what they lack and demand. Reflecting the needs and demands of the aged, the School was opened officially, and their efforts were fruitful. Although the history was short, they were fruitful. However, improvements were needed as well. The problems should be well organized and analyzed for solutions so that the School would actively solve the aged immigrant.

ACKNOWLEDGEMENT

어느 때든 힘들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된다. 브라질 이민 목회를 시작한지 2년이 되었다. 미국에서 뉴욕신학교를 입학하고 1년 과정을 마치고 이곳으로 재이민하여 한인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목회의 환경이 바뀌면서 참으로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무사히 논문을 완성을 할 수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새소망 교회 담임 박재호 목사님의 호의를 잊을 수 없다. 이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백창건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멀리 한국에서 늘 기도로 후원하시는 나의 부모님과 장인과 장모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나의 급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의 모난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 했던 나의 아내 최미경 사모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큰 아들 ‘종섭’이와 외교관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집 공주 ‘예은’이와 우리 집의 보배 ‘결’이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별히 막내아들 ‘결’이게게 아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미안함과 더불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논문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 브라질 한인사회와 새소망교회를 더욱 잘 받들어 섬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를 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목 차

제 1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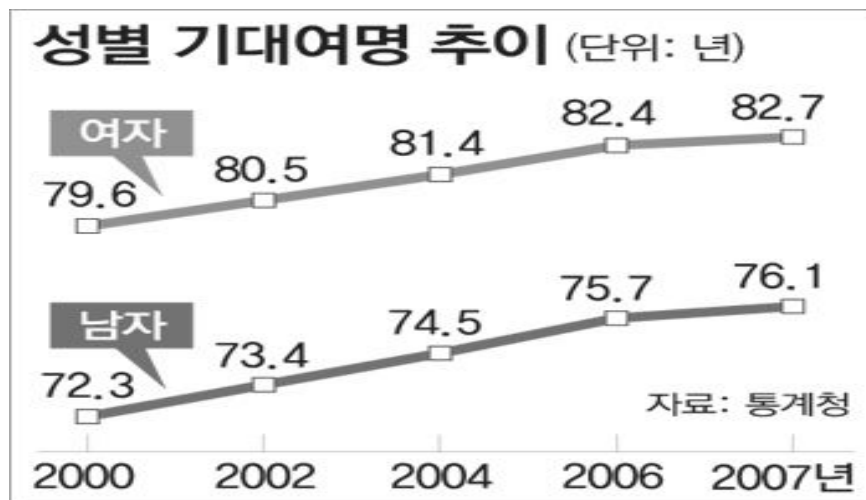
제 1 절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의학의 발달과 생활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1926년부터 1930년까지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32.4세 여자 35.1세로 남녀 평균 33.7세였다. 그런데 1999년 한국인 남자의 평균수명이 71.7세, 여자 79.2세 남녀 평균 75.5세인 점을 감안하면 70여년만에 한국인의 수명은 42년 늘어나게 되었다.[1] 동아일보가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성별 기대여명추이를 보면 2007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여자의 경우 82.7세, 남자는 76.1세를 살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2]

표 1 한국인 성별 기대여명 추이

성별 기대여명 추이 (단위: 년)

	2000	2002	2004	2006	2007년
여자	79.6	80.5	81.4	82.4	82.7
남자	72.3	73.4	74.5	75.7	76.1

자료: 통계청

이처럼 한국의 평균 수명과, 기대 여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급격하게 부상하고

---

[1] 경성의대 · 통계청, "연도별 한국인의 평균수명", *동아일보*. 2001.9.11.

[2] *동아일보*. 2008. 12. 10.

있는 것이 노령화의 문제이다. 이제 노령화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노령화의 시대의 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해마다 노인복지의 예산을 증액하여(정부 총예산 대비 노인복지 예산 1982년 0.01%, 1992년 0.17%, 2002년 0.37%) 이에 관련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과 사회보험제도에 근거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아직도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한정적이며 선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의료비지출 규모는 1990년 1,621억에 비해 10년이 경과한 2000년도에는 9.7배 가량 증가하였다. 더욱이 전체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서 18%로 높아졌으며[3] 향후 그 추세는 더욱더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만 의존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하기에는 복지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즉 정부 이외의 자선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기대하여야 하는 바 이 점에서 종교단체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바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까지 종교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활동은 저조한 편으로 이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 불교는 신도 수에 비해서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며 카톨릭은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양적인 측면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나, 질적 차원의 유기적 조직체계와 협조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기독교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낮은 복지 인식, 사회봉사에 대한 교회의 재정구조 문제, 교회 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활동이 저조하다.

특별히 교회는 노인들의 여생을 평안히 돌보아야 하며 자녀들과 함께 연계를 가지고 노인을 보살펴 주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다른 기관이나

---

[3]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관련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2002.

조직에서는 가질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노인은 늘 소외되고 빈곤의 계층으로 수혜자로 인식되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노인들이 교회 내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했다. 성경은 노인을 지혜의 원천이고 공경의 대상이며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복을 받을 행위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공경하고 돌보아주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의무로 해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노인을 존경하고 노인의 지식과 경험을 흠모하며 노인들의 생활상의 곤란을 보살펴주고 그들이 평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노인을 위한 실제적이며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회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사업은 양로원 방문 및 지원, 불우한 노인의 식사 대접, 노인을 위한 노력봉사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인취업 및 부업 알선 등은 이것을 담당하는 전문적 기관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노인대학 이나 노인문제 상담 등의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김원이의 "한국 교회의 노인복지프로그램 실시 현황 조사"에서는 경로잔치가 30%로 가장 많았고 양로원 지원 23%, 무료급식소 운영 및 불우한 노인의 결연 사업 12%의 순서로 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들 교회에서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재정지원은 2%를 할애하는 교회가 29%, 3%지원 하는 교회가 24%로 대다수의 교회가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이처럼 현재의 노인복지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한 일부 사업에 국한하여 전개되고 있는바 교회의 노인복지사업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일회적이고 물질직 행사에 치우친 노인복지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환언하면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가는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물질적 지원은 물론

[4] 김원이, *교회의 노인복지 참여 방안 강구* (서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44-45

정서적, 영적 지원을 해야 하며 빈곤계층 노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교회에서 실시하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은 노인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고 이를 통해 만족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처를 통해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브라질 이민 1세의 노인들도 한국의 상황과 같다. 1997년 상파울루 총영사관의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총인구는 27,633명이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809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이다. 2009년 2월 연방경찰의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 전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총인구는 24,950명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년 전의 인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 60세 이상의 인구는 15%를 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 브라질 거주 한인 연령별 인구통계

대한민국 상파울루 총영사관 1997. 3.

연령(세)	인구수(명)	비율(%)
1-9	1,961	7.1
10-19	4,163	15.1
20-29	5,583	20.2
30-39	5,875	21.2
40-49	4,111	14.9
50-59	3,131	11.3
60-69	2,145	7.8
70이상	664	2.4
계	27,633	100.0

이와 같은 통계로 볼 때에 브라질 이민 노령화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 특히 브라질 이민자들은 대부분이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로부터 노후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한국정부의 노후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생을 고단한 이민의 생활을 하고 이제 노년을 맞이한 한인 노인에게 한인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서비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 2 절 연구목적

연령에 따라 노인을 분류할 때 65세에서 74세까지의 노인을 연소 노인(Young-Old), 75세 이상을 고령 노인(Old-Old)으로 분류한다.[5]

인간이 나이를 먹는 것은 단순한 신체적 연령뿐만 아니라 인생주기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연세대학교의 윤진 교수는 나이를 내용과 용도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 첫째가 신체적인 나이 혹은 달력의 나이(chronological age or calender age)로 개인의 능력과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나간 시간만을 계산하는 나이이다. 둘째로 생물학적인 나이(biological age)로 개인의 생리적 발달과 성숙의 수준 및 신체적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나이이다. 셋째로는 심리적인 나이(psychological age)로 신체적인 나이의 증가와 심리적인 성숙과 적응이 동시에 이루어져 인생의 발달 단계를 잘 거쳐 가고 있는가를 보는 나이가 있다. 넷째로는 사회적인 나이(social age)로서 사회규범으로 정해진 각 연령에 맞는 역할이 기대되는 나이이다. 끝으로 지각적인 나이(self-awaring age)로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나이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의 계층으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인 세 차원에서 역할기능이 미비 되거나 미비 된 부류의 사람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는 일차적인 원인과 이차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차적인 원인 본질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차적인 원인은 사회의 제도적 대응의 미비라 할 수 있다.[6]

---

[5] 윤진, *성인 ·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24-25.

[6] 최성재, *21세기 한국노인복지의 증진과제와 전망*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자료집, 1999년), 199.

특히 브라질 이민 노인들이 겪는 문제는 본국의 노인들이 겪는 문제들보다 더 광범위하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원인과 이차적인 원인과 더불어 이민 노인들이 겪는 역할상실문제, 언어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의 문제를 새소망교회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하여 안정인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이 지향하는 것이다.

제 3 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문헌을 통하여 노인의 개념과 노인의 특성, 그리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노인을 이해하고 실증연구를 통해서 노인들의 삶의 문제와 그들이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새소망 교회에 노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상파울루 시내 한인교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새소망교회에서 노인학교를 개설한다. 개설한 노인학교를 통하여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시행하고 시행하기 이전의 노인의 삶과 시행 후의 노인의 삶을 비교한다.

제 2 장 배경

제 1 절 브라질의 지리적 고찰

1. 위치와 크기

브라질은 연방공화국으로 고유 명칭은 Republica Federativa do Brasil로 Pau Brasil이라는 향나무(빠우 브라질이란 나무는 대서양 연안에 자생하는 나무로 붉은 염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료로도 사용된다.) 이름에서 유래했다. 브라질은 남미 대륙의 47%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이며 국토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의 85배인 나라이다. 브라질의 남북의 거리는 4,321㎞, 동서의 거리는 4,328㎞이며 국경의 길이는 23,127㎞이며 대서양에 면하는 해안선은 7,408㎞에 달하고, 한국으로부터 약 20,000㎞ 떨어진 지구의 반대 축에 위치해 있다.[7]

북부 국경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은 산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원으로 되어있으며, 그 중 60%의 국토가 200-900m의 기복 있는 고원으로 되어있다. 한편 전장 약 6,000㎞로 세계 최대 수량을 자랑하는 아마존강을 비롯하여 큰 강이 많고 국내 여러 강의 항행 거리는 총 44,000㎞에 이르며 남쪽의 이과수폭포를 비롯하여 수많은 폭포는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8]

브라질의 북쪽에 위치해있는 아마존지역의 북부를 적도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브라질 국토의 대부분이 열대지방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직 남부지역만이 온대에 속한다.[9] 아마존 지역은 전형적인 열대 기후로서 고온 다습하며 강우량이

---

[7] VARIG항공, *BRASIL* (서울: 브라질항공 VARIG, 1991), 9.

[8] 고의장, *동아세계대백과사전15권 브라질* (서울: 동아출판사), 231.

[9] 이은식, *브라질*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87), 9.

많은데 본격인 우기는 1-6월이다. 중앙부의 고원에는 비교적 비가 적으며 우기와 건기가 명확하게 구별되며 아열대기후이고 남부는 브라질에서 제일 기온이 낮은 온대 기후에 속한다.[10]

브라질에는 눈 덮인 산도, 화산도, 사막도 없다. 특히 지진이나 허리케인, 사이클론 및 이와 유사한 재난은 없으나 중부 및 남부지역에는 폭풍우, 한발 및 서리가 때때로 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 여러 면에 대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세계에서 가장 민물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이 있는가하면, 사람과 동물이 목말라 죽어 가는 동북부의 가뭄은 심각할 정도이며, 특별히 2년 이상 되는 긴 가뭄과 같은 극적인 상황도 1980년 이후 이미 두 차례나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 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 오랜 건조기가 지나면 항상 비가 내리는데, 처음에는 축복인 것 같으나 이내 저주로 바뀌어 폭우로 변하여 가뭄의 고통이 가시기도 전에 홍수의 재앙이 뒤따르는 것이다. 말랐던 강바닥에는 밤사이 물이 가득 차고, 강이 범람하여 죽음과 파괴로 이어지고, 질병과 절망을 가져온다. 이런 우기가 6개월 정도 이어지다가 다시 해가 나기 시작하면 다시 가뭄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결국 브라질에서 가장 영양이 부실하고 가장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발견되는 곳이 바로 이곳 동북부와 아마존 산림의 내륙이다.[11]

2. 인종과 인구

현재 브라질의 인구는 1억 6천만 명이며[12] 인종구성은 대단히 복잡하다. Patrick Johnstone은 “브라질은 수많은 인종이 서로 결혼하여 종족의 도가니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13] 원래 인디오 원주민이 사는 곳에 16세기에 포루투칼인들이 식민지화 시킨 것을 시작으로 하여 처음에는 인디오와 혼혈이 되었고, 그후 설탕산업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의 흑인이 들어와 혼혈이 되었고, 19세기

---

[10] VARIG항공, 10.

[11] Tiago de Melo, “대조의 나라”, *세계로 열린 창* (1987년 8호), 6-10.

[12] “한.브라질의 첫 정상의 의미”, 중앙일보, 1996. 9. 12.

[13] Patrick Johnstone, *세계기도정보*, 죠이선교회 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4), 288.

이후에는 포루투칼인은 물론 독일인, 이탈이라인, 스페인 기타 유렵계, 아랍계인들이 들어왔고 20세기에는 동양계인 일본, 중국, 한국인등이 정착하게 되었다. 이것을 세밀이 분석하면 유렵계 53%, 아프리카 11%, 혼혈 34.8%, 아시아 1.1%, 인디오 0.1%이다.[14]

브라질의 혼혈은 종류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혼혈아를 메스티조(Mestizo)라고 부른다.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을 마메루꼬(Mameluco)라 하며,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의 혼혈을 몰라또(Mulato), 인디오와 흑인 사이에는 까후조(Cafuzo)라고 부른다.[15] 이외에도 많은 혼혈이 있지만 북쪽의 어느 도시에 가면 금발의 흑인이 있는데 그 혼혈을 싸라(Sara)라고 부르며[16] 한국의 원양어선 기지인 벨렝(Belen)과 한국 선박이 많이 오는 산토스(Santos)항구에는 한국형 브라질 인이 눈에 많이 띈다.

이렇게 여러 인종이 혼합된 나라는 드물 것이다. 그래서 브라질은 다인종, 다민족국가로서 많은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들을 완만하고도 원숙하게 처리한 모범적인 국가로 지칭된다. 브라질 사회는 "다인종, 다민족사회의 모델이다."라는 국제적인 평가를 의식한 브라질정부는 국시(國是)로서 '인종 데모크러시'(Raça Humana Democracia)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브라질정부는 1951년에는 브라질에서는 인종 차별행위를 벌하는 아퐁스 아리노스법이 제정되었다.[17]

제 2 절 브라질의 역사적 고찰

포르투갈에 의해 브라질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아시아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되는 인디오가 유목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다. 수많은 종족들이 약 1000여개의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았으므로 고도로 발달된 문명은 이룩되지 못하였다.

---

[14] Ibid., 288.

[15] 김활수, *남미의 중심 브라질 선교*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대학원, 1989), 33-34.

[16] 강성철, "생명의 열매 기다리며", 상파울루 크리스찬신문, 1995. 11. 18.

[17] 김활수, 42.

인디오들은 15세기 무렵까지 구석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5세기 이후 1500년 포르투갈인 P.카브랄이 브라질을 발견하면서 유럽에 알려지게 된다. 그 당시 유럽에서 염색약으로 사용되던 붉은색의 염료를 만드는데 사용되던 브라질나무가 많이 생산된다고 하여 '브라질'이란 이름이 붙었다. 유럽인들은 브라질에 이주하여 인디오를 거의 몰살시키거나 노예로 삼고,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들 역시 노예로 삼아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였다. 17세기 말엽에는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금과 다이아몬드가 상당량 발견되기도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한낱 식민지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1808년 나폴레옹이 포르투갈을 침략하자 포르투갈 왕실이 브라질로 옮겨오게 되면서 제조업의 합법화 등 많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브라질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고 왕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1822년 포르투갈 왕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자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다시 식민지로 격하시키려 하였고, 본국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던 황태자 둠 페드루 1세는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군주의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그는 1831년 독재를 일삼는다는 이유로 왕위에서 물러났고 페드루 2세가 즉위한다. 그의 치하에서 브라질은 커피 농사의 번성과 유럽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민 덕분에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다. 또한 삼국동맹전쟁에서 파라과이를 꺾고 많은 영토를 얻는 등 다방면에서 업적을 쌓았다. 또한 1888년에는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과 부호들, 이른바 '콜로네레스'들은 왕을 폐위시켜 프랑스로 추방시키고 공화정을 채택한다. 이후 브라질은 전세계 커피의 4분의 3을 생산하면서 부국이 된다. 수차례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콜로네레스 정부를 전복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1930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자, 리우그란데두술 주에서 G.바르가스가 청년 장교들의 지지를 얻어 쿠데타를 일으켜 콜로네레스 정부를 무너뜨렸다. 이후 잦은 쿠데타와 정권 교체로 인해 많은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된다. 바르가스의 독재정치에 대항하여 1935년 공산주의 성향의 '민족해방동맹'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 이후 1937년부터 선거로 정권이 교체된 2002년까지 세 번에 걸친 독재 정치를 경험하였다.

2002년 선거로 사회주의 정당인 노동자당(PT)의 창시자인 룰라 후보(Luiz Inácio Lula da Silv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전까지의 우파 정부에서 좌파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18]

제 3 절 브라질의 문화적 고찰

브라질 문화를 흔히 이베리아 문화를 기반으로 한 흑인과 인디오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브라질의 전통문화를 유럽문화가 열대의 기후에 적응한 성공적인 하나의 사례이다.[19]

1. 포르투갈 문화

언어는 문화에 깊은 영향을 주는데, 브라질에선 아마존 오지에 거주하는 10만인 가량의 인디오를 제하고는 모든 국민이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근대합리주의 문화 이전의 유럽문화가 브라질에도 퍼져 귀족들이 육체노동을 피함으로 비생산적이고 게으르게 만들었다. 그러나 포르투갈 문화의 특징은 타문화에 대해 관대함과 포용성을 들 수 있다. 포르투갈은 그들의 뛰어난 예술을 몰라또 등의 혼혈족에게 이전 시켜 성당, 궁전, 관공서 등의 건축물에 포르투갈의 뛰어난 건축양식의 형태인 마누엘양식과 바로크문화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조각, 금은세공, 건축, 회화 등에서 찬연히 그들의 예술을 빛나게 했다. 이렇게 각 계층에 뿌리를 내린 포르투갈 문화는 특별히 추출해 내는 데는 많은 곤란이 뒤따르게 된다.

2. 인디오 문화

브라질에는 고도의 문화를 가진 인디오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포르투갈 문화와 인디오 문화가 공존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멕시코나 페루에서의 유혈 충돌을 통해서

---

[18] "브라질",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accessed 25 May 2009)

[19] 유충선, *협력선교를 위한 브라질 한인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99), 13.

심겨진 스페인 문화와는 대조가 된다. 인디오 문화는 종교나 기술면에서는 브라질 문화에 인정 될 만한 영향을 주진 못했다. 그러나 그 흔적은 많은 도시들과 지리적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들에서, 그리고 현실을 해석하는 중요한 체계의 양상들에서도 발견된다.[20] 브라질의 지명, 동식물명에 극히 많은 뚜삐어(인디오의 언어)가 남아있는 것은 아무리 포르투갈의 문화가 밀려와도 이들의 기층문화는 불변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과수 폭포는 뚜삐어로 이(Y)는 "川"을 의미하며, 과수는 '큰'이라는 형용사로 확실하게 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인디오어는 지명이 6%, 동물과 식물의 명칭이 50%가 된다.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인 마메르꼬 중에는 정치가, 저명한 음악가, 문인 등 중견적인 인물이 많다. 또한 이들 인디언들 중에는 태고의 원시인과 다름없는 순연한 원시인도 상당수가 있어 브라질 문화가 이들을 어떻게 수용하며 변용 시켜 나가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이다.

3. 흑인 문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타난 아프리카 문화는 앙골라지방의 음악의 계보로부터 생긴 것이며 쿠바의 룸바와 맘보도 콩고계 주민의 음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흑인들의 최대의 낙은 매년 행해지는 카니발이다. 무수히 많은 삼바학교에서는 흑인들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연습을 계속하고 있으며, 축제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다음해의 축제를 위해 다시 연습이 시작된다. 현재의 브라질 사회의 현저한 특징의 하나는 주민의 피부색과 사회계급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탈 흑인화 현상은 브라질이 지향하는 방향이 되고 있다.

4. 유럽 문화

서구화 바람이 불기 시작한 브라질에 특히 영국과 프랑스류의 생활양식을 규범으로 하는 태도는 그때까지 아프리카계 흑인의 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은 브라질인의 생활양식을 급속히 탈 아프리카화 해 식탁에는 맥주와 빵이 나오고,

[20] Carlos Rodrigues Brandao, *세계로 열린 창* (1987년 8호), 45.

리오의 귀족 출신들은 실크 헤드를 쓰고, 귀부인들은 파리에서 유행하는 옷을 입고,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극장에 드나들며 이탈리아의 오페라 가수들에 도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상류계급의 자제들은 영국과 프랑스에 유학하여 교육을 받았다. 브라질은 열등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기를 두려워하여 제2차 대전까지 유색인종의 외교관을 결코 해외에 파견하지 않다.[21] 유럽 이민자들은 각각의 개척지에서 모국어를 계속 말하고 모국어 학교를 만들어 그곳에서 모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유지해 나가며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민족적으로 동질성의 높은 지역 사회를 형성해 나갔기 때문에 다수인 포르투갈계 브라질 인으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문화와 사회가 형성되어 또 다른 '하나의 브라질'이 파생되어 사회문제와 국가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5. 인종 데모크러시(Raça Humana Democracia)

브라질은 다 인종 다민족 국가로서 많은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생기는 갈등들을 완만하고도 원숙하게 처리한 모범적인 국가로 지칭된다. 또한 이런 국제적인 시각을 의식한 브라질은 '인종 데모크러시'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브라질에서는 인종차별행위를 벌하는 아퐁소 아리노스법이 제정되었다. 브라질은 여러 종족들의 집단과 문화가 서로 엄격히 분리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브라질 문화는 이민사회들의 민족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해 다 인종 다민족의 조화 있는 융합이 실현된 종족 상호 혼합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22]

제 4 절 브라질의 종교적 고찰

브라질의 종교는 다양성이 있다. 브라질 민족은 인디오와 혼합되고 아프리카

---

[21] 브라질의 지식층은 브라질의 사회발전의 늦음은 흑인종의 존재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여 자국의 비 백인문화와 사회에 강한 열등감을 갖고 백인화를 꾀했다. 그리하여 커피시대에는 많은 유럽이민자들이 유입되었다. 이 유럽이민자들은 전통적인 플란테이션 농업(서양인이 자본·기술을 제공하고 열대의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원주민·이주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단일경작을 하는 기업적인 농업경영을 말한다)을 행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자영 개척 농업을 시작했다. 유럽 이민으로 인해 브라질 남부는 주님의 90%가 백인이고, 이로 인해 노동을 경시하던 브라질 상류사회의 풍조를 깨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중산계급을 형성하고 브라질 사회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

[22] 김활수, 36-43.

흑인들과 혼합되고 유럽인들과 혼합되어진 특수한 상황 만큼이나 문화가 다양하듯이 종교 역시 여러 형태의 종교가 있다.

1. 영매술

고등 영매술의 교리를 만든[23] 프랑스의 영접자 Hippolyte Leon Denizard Rivail (1804-1869)는 1855년에 진리의 영과 교통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는 Allan Kardec이라는 옛 승려 이름을 가명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는 새 종교를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책을 저술했다.

그는 "영매술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영적 세계의 본질과 유형적 세계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와서 계시하는 새 과학으로 그것을 신의 셋째 계시"라고 말했다.[24] 그는 모든 저서들을 통해 우주에 있는 영들과(망자의 영) 이 세상에 사는 생자가 교통할 수 있다고 가르치며 계속되는 환생을 통해 인간의 영은 계속하여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의 핵심 사상이다.

그러나 영매를 반대하는 기독교의 학자들의 정의로는 죠쉬 멜도웰, 돈 스튜어트는 교령술의 주요 사상은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질세계와 영혼세계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영매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단지 죽은 자들의 영들인 체 하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다.[25] 이와 같이 영매술은 사탄, 귀신, 즉 미혹의 영을 섬기는 일종의 사탄 종교라고 한다.

1844년 Marques de Maria가 브라질에서 최초로 영접자들의 가르침을 실은 책을 출판했다. 1847년 미국에서 Andres Jackson Davis가 영매의 경지 경험을 했고, 1848년 미국에 Margareht Fox, Katie Fox 두 자매가 근대 영매술을 시작했다.[26] 영매술의 교리책은 프랑스의 Hippolyte Leon Denizard Rivail (1804-1869)에 의해서

[23] 그의 교리 저서는 '영들의 책'(1857년), '영매술이란 무엇인가?'(1859년), '영매술에 따른 복음'(1864년), '천국과 지옥'(1865년), '기원'(1868년) '유저'(1890년)이다.

[24] Allan Kardec, *O Evangelho Segundon o Espirismo*, Trad, Guillon Ribeiro (RJ:FEB,1957) 44. Hippolyte는 1856년에 새 계시를 받으면서 Hippolyte라는 이름 대신에 Allan Kardec를 쓴다.

[25] 죠쉬 멕도웰·돈 스튜어트, *오컬트*, 이호열 역 (서울: 기독지혜사, 1989), 183-184.

[26] Abraao de Almeida, *O Espiritismo no Brasil* (em Uma tarefa Inacabada), 102-104.

쓰여 졌다.

그의 영매술을 가리켜서 '고등영매술' 또는 '카르텍 영매술'이라고 부른다. 그의 저서들은 일찍이 포어로 번역되어 브라질 카르텍 영매술의 기본 교리서들이 되었다. 카르텍 영매술은 1853년 Maconarina를 통해서 브라질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미 브라질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의 마술들과 브라질의 본토인 인디오, 그리고 포르투갈인들의 우상숭배가 4백여 년간 뿌리내리고 있던 때였다. 1882년 Cambridge에서 영매학회가 조직되었고, 1884년에 브라질 영매술 연합체 FEB가 세워졌다. 정식 첫 영매술의 개회가 1865년 Bahia주의 Salvador시에서 시작되었으며, "자애 없는 구원은 없다" "자애 없는 참 영접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대회의 요점이었다.

이처럼 브라질의 영매술은 카르텍의 가르침과 그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났고,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영매술의 주요 교리인 환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영매술의 환생은 사람은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만 태어난다는 것이 다르다.

브라질 영매술 연합체는 "A Nova Era" (New Age)라는 영접술 잡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출판물을 냈다. 카르텍이 이미 New Age를 언급했고 브라질 역시 카르텍의 영매술과 함께 New Age 운동이 시작되었다. 카르텍 영매술에서 인간의 영이 고등 영(발달한 영)이 되기까지 계속 윤회하여 신 곁에 가는 것 곧 신이 되는 것이 New Age 운동에서 인간이 자신의 신적인 것을 발견하고 전개하여 신적인 영이 되어 신이 된다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27]

카르텍 영매술은 고등 영매술이나 하등 영매술 사이에서 종교적 의식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이 둘은 동일하다. 하등 영매술이라는 단어는 인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뜻은 민중의 종교성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군중의 종교 표현방법이다. 하등 영매술은 학자에 따라 아백(afro-brasilian)종교들 혹은 아백 영매술로 부른다. 이는 브라질에서 아프리카의 사교와 인디오, 즉 브라질의 본토인의 의식과 유럽의 매직(magic)과 함께 뒤섞여 있다. 브라질에 들어온 아프리카인들은 백인들이 시키는 노동을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고 매직의식을 실행했다. 그들은 브라질에서

---

[27] 바실레아 슐렝크, *뉴에지 운동*, 이호열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3), 20.

백인들의 학대를 받으며 고난 속에서 그들의 매직 종교 속으로 더욱 피난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그들의 나라에서 신앙을 가져왔으나 브라질에서 카톨릭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따라서 백인들이 "처녀 마리아"를 경축하는 종교의식에 노예들을 초청하면 노예들은 마리아라는 가면을 쓴 아프리카 신들을 부르는 춤을 추었으나 백인들은 그것을 몰랐다. 백인들은 흑인들의 숭배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 숭배는 당시 카톨릭의 하나의 해결책이었는데 그것은 카톨릭 성자와 그들의 최고의 신, 오리사스를 혼합하였다.

하등 영매술에 속하는 움반다, 깜반다, 마꿈바, 깐돔블레는 오리사스에게 제사 하는 것이 특징인데 그들의 제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의식들은 유사하다. 지도자들은 집회를 인도하고 영매들은 신들을 불러내게 한다.

움반다는 아프리카의 종교와 천주교의 혼합 종교로서 브라질에서 탄생되어 성행하는 사교이다. 예식 시에 닭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삼으며 사제가 입으로 목을 물어뜯어 피가 튀게 하며 사탄과 피의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다. 흰 옷을 입고 사탄과 춤을 추어야하며 거부 시에는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는데, 암매장한 것이 발각되어 메스컴에 보도되기도 한다.

마꿈바는 브라질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흑인종교로부터 증오만을 적출해서 탄생한 살인 저주(咀呪)법으로 주살(呪殺)이라고 말해야만 할 비밀스런 의식이다. 이들은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에게 이런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이 마꿈바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저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주법인 마꿈바는 수법자가 있고 의뢰자가 있어서 그 양자가 완전한 합의에 달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다. 즉 마꿈바의 비의(秘儀)는 살인 의뢰자가 자신들의 집회 장소에 나타나면 사제는 간부에게 명을 내려 의뢰자와 완전한 합의를 하게 하므로 바꿈바 비의가 성립된다.

마꿈바가 성립되면 신도와 신자들은 일반대중에게 다투어 소문을 내게된다. 이렇게 되면 강한 노이로제 현상과 정신적인 압박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죽는 자도 생긴다. 1960년에서 1972년 사이에 리로(Rio)시에서만 24건이 있었는데 14인이 죽었다고 한다. 마꿈바는 저주하고자 하는 대상의 집 근처나 거리에 있는 전봇대에 술과 함께 촛불을 켜 놓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영매술이 브라질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오순절의 한 종류인 브라질의 '데우스 에 아모르'(Deus é Amor)의 교파의 신도들은 메스컴에서 목사가 기도하는 것을 병자가 듣고 동시에 그 앞에서 기도 받은 물 한 컵을 마심으로서 치료를 기대한다. 이것은 하등 영매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개신교 중에도 물을 치료하는 약으로 믿고 마시는 교파가 있다. 그리고 '이그레자 우니베르살 도 헤이누 디 데우스'(Igreja Universal do Reino de Deus)는 목사가 예배당 입구에 기도한 물을 그릇에 담아 놓고 이름을 "축복의 물"이라 하여 교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 그 물을 찍어 얼굴에 바르는 행위를 통해 축복을 받는다고 믿고 행한다. 이런 행위들은 매직적 행위이다. 오순절파 계통의 목사들 중에는 하등 영매술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마부'로 부르고 그에게 명령하고 그를 부리는 언행을 한다. 하등 영매술 교도들은 물질적, 육적, 세상적 만사형통을 위해서 귀신에게 선물이나 인간을 제물로 준다. 그리고 영매술 지도자들은 병 고침에 대한 장담과 경제적 부를 약속하는데 오순절 교파 계통의 교회들 역시 병 고침에 대한 장담과 교회에 나오면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한다고 약속한다. 이것은 매직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2. 카톨릭

16세기 초에 브라질이 포르투갈에 의해 발견됨에 따라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때 예수회의 신부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16세기에는 선교의 주도권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국왕들과 대 종단들이 장악하고 있었으며 종단으로서는 예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였고,[28] 그 뒤를 따라 프란체스코회와 도미니쿠스가 좇았으며, 이들은 재정적으로 풍부하였으며, 종단 사이의 경건한 경쟁은 정력적이고도 독립적인 활동을 진작시켰다. 그래서 브라질은 초기부터 카톨릭 선교사에 의해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여, 카톨릭 신도들이 절대 다수인 세계 최대의 카톨릭 국가가 되었다.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카톨릭 교회는 '사회문제'로 야기된, 소위 "인류

[28] Willistone Walker,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561-567.

대다수가 인간 이하의 비참한 환경, 특히 압제받고 소외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독재 정권이나 전제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처사에 침묵하고 있는 교회"[29]에 대하여 말하면서 "해방운동에 참여하는 일 그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사업이며[30] 이 해방은 기존 체제를 무너뜨려야만, 즉 사회혁명을 일으켜야만 달성된다."[31]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서 해방신학이 나오게 되었다. 해방신학은 카톨릭 발전에 큰 지장을 주었고, 이들의 주장이 한 때는 큰 호응을 얻었으나 시간이 점점 갈수록 그 힘을 잃어갔다.

카톨릭 신자는 점점 갈수록 그 숫자는 줄어만 갔다. 상파울루의 초교파 종교연구소 디렉터인 폴로 로메이로 목사는 "브라질에서 카톨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개신교의 복음주의 운동이 강성해지는 한편 카톨릭은 점점 쇠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32] 카톨릭 지도자들은 매년 60만 명의 카톨릭 신도들이 카톨릭을 떠난다고 말하면서 카톨릭은 더 이상 옛날과 같은 전성기를 가질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카톨릭이 쇠퇴해 가는 이유는 첫째로는 브라질 각종 이단들의 성장이며, 둘째로는 개신교의 성장이다.

3. 개신교

개신교의 선교는 19세기 초엽까지 카톨릭의 영향으로 큰 빛을 발하지 못했다. 당시 카톨릭은 정교일치체제 아래 있었고,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는 이단시되어 적대 관계에 있었던 만큼 선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555년 '휴그노' 일행이 바이아 다 과나바라(Baia da Guanabara)에 첫 번째 개신교의 예배를 드렸지만 카톨릭의 박해로 3년 만에 쫓겨나고 말았다.[33] 그후

---

29 Gustavos Guitierrez, *해방신학*, 성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0), 91.

30 Ibid., 100.

31 Ibid., 135.

32 김영화, *라틴아메리카의 선교상황과 선교전략, 한국교회 선교의 비전과 협력선교* (서울: 도서출판 횃불, 1992) 228.

33 Paulo Siepierski, *Missionarios Protestantes Extrangeiros no Brasil dos Primordios ao Congresso do Panama,* Perspectivas Historicas, Vol. Ⅱ, ed. C. Timoteo Carriker. (São Paulo: Editora Mundo Cristao, 1993), 49.

1630년에 네덜란드인들이 뻬르남부꼬(Permambuco)에 침입하게 된다. 이때 장로교 두 목사가 오게 되었고, 이들은 이곳에 살면서 장로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이들도 1654년에 쫓겨나게 되었다.[34]

개신교가 1810년에 다시 한 번 브라질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선교 정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적 패권을 지닌 영국이 침략적인 성격을 띠고 브라질에 도착하였다. 지금까지 브라질의 경제권을 쥐고 있던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상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브라질에 거주하게 된 영국인을 위하여 영국인 교회가 1819년 리오(Rio)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 후 1822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이민을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선교적 성격을 띤 루터교회가 브라질에 오게 되었다.[35]

개신교는 1960년에 교회 출석 신자수가 1,527,200명, 1970년에 2,623,550명, 1980년에 6,702,405명, 1985년에 9,447,116명이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교파는 "하나님의 성회"로 1960년에 376,800, 1985년에 3,500,000명이었다. 오순절 교파는 1988년에 8백만 명이 넘었다. 장로교는 1985년 291,600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36]

브라질 침례교신학대학 교수였던 Richard J. Sturz는 브라질 교회의 성장 요인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그 다음은 국내의 빠른 경제적 변화로 인한 국내 이주, 사회문화의 변화로 열린 나라가 되면서 개신교회가 급속히 늘어났으며, 브라질인은 종교성이 넘치므로 평신도들이 설교하고, 노방전도하고, 심방하고, 불신자들을 열심히 교회로 초대하는 열정이 있다. 그리고 쇄신운동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헌신, 생물학적 성장, 뜨거운 찬송"등을 브라질 교회의 성장 요인으로 들고 있다.[37]

---

[34] Ibid., 49.

[35] Ibid., 50.

[36] 김완기, *브라질 선교를 위한 영매술에 관한 고찰* (총신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90.

[37] Ibid., 91.

제 5 절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

1.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보면 1918년 일본 국적의 재일 교포 4세대 6명이 일본인 이민자 120세대와 함께 싼토스항에 도착한 것이 한국인 최초의 브라질 입국이다.[38] 그 이후 1953년의 6.25 한국동란 시에 인민군으로 유엔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석방된 포로들 중에서 중립국을 선택한 경우가 있었다. 이들이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에 의해서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통해 인도로 가게 되었고, 1956년 2월 유엔군의 알선으로 한국인 반공포로 50여명이 무국적 신분으로 브라질에 오게 되었다.[39] 그러나 이들은 남미 이민 역사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민은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로 향할 때, 당시 대한민국 국적, 즉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40]는 이민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 이후부터 1960년대 초 사이에 한국의 정국은 매우 혼란한 상태였다. 당시 정치적 혼란과 전쟁에 대한 불안은 국민들로 하여금 해외로 나가려는 의욕을 갖게 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이주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남미의 한국이민이 실현된 것은 제3공화국 정부 하에서였다. 5.16과 함께 등장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산하에 이민업무전담 특별보좌관을 두어 해외이주 법 제정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정일권 주미대사로 하여금 브라질을 방문하여 이민을 교섭토록 훈령하였다.[41]

1961년 1월에는 한국이민협회를 발족하였고, 그해 12월 양국 정부간 협약을 기초로 하지 않은 채 소위 문화사절단을 형성하여 브라질 방문 길에 올랐는데 이들이 1956년 반공포로이후 첫 한국의 이민단이 된다.[42]

---

[38] VARIG, *한국 이민 현황 (브라질)* (상파울루: 브라질항공사, 1989), 49.

[39] 이인길, *송암문학전집* (상파울루: 한국인쇄소, 1983), 548.

[40] 전경수, *세계의 한민족: 중남미* (서울: 통일원, 1996), 52.

[41] Ibid., 53.

1962년 2월에 정부가 해외이주 법을 공포함으로서 해외이민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문화사절단으로 브라질에 갔던 정인규는 김수조와의 협력에 의해서 브라질 정부로부터 116가구의 한국이민 쿼터를 받아서 1962년 귀국하였다.[43]

이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던 브라질 이민은 즉각적인 실현 단계로 접어들면서, 한백문화협회를 한백진흥주식회사로 바꾸어 1차로 33가구를 선발하여 해외이주 자격 심사를 마친 후 일본에 상주하던 브라질 영사에게 비자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33세대 가운데 우선 17가구 92명과 독신자 11명 등 총 103명이 1962년 12월 18일 제1차 이민으로 이민 수송선인 찌짜렌카호를 타고 부산항을 떠나, 1963년 2월 12일 브라질 싼토스항에 도착하게 되었다.[44]

제2차 이민은 1964년 초 68세대 약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빅토리아시 폰테 림빠에 거주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농장을 둘러보고 농사를 지을 환경이 못 된다고 판단하여 입주를 포기하고 리오 데 자네이루와 상파울루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후 3차 이민은 1965년 후반에 46세대의 이민이 두 번에 걸쳐 브라질에 도착한 것으로 카우사 케이스라고 한다. 카우사는 리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독계 농지식민개발회사이다. 그러나 이 케이스는 농업이민을 빙자한 이민 입국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브라질 정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행정적 제재를 하지 않아 이민 사업자의 돈벌이를 방관하는 꼴이 되었다. 제4차는 볼리비아의 개인 초청장으로 브라질 경유비자를 받고 일단 브라질에 입국한 후 법적 요건을 구비하게 하여 브라질 영주권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었다.[45]

어렵게 시작된 브라질 이민은 1965년 4월 5차 이민이 영농이민 허가를 받고 빠라나주 지역으로 부산항에서 출발한 이민선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이유는 브라질 정부는 광대한 국토를 개척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농부를 이민자로

---

42 황문규, *브라질 한국인 이민교회와 선교* (서울: 예장 총회 교육부, 1983), 24.

43 전경수, *브라질의 한국이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39.

44 Ibid., 40-41.

45 전경수, *세계의 한민족*, 57-58.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에서 보낸 이민자들은 대부분 서울 출신의 상인들이었다. 처음엔 이들도 농사를 지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농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대부분 농장을 떠나 도시인 상파울루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46]

한국 농업 이민의 실패로 브라질 정부는 한국이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외교적 통로를 통하여 브라질 이민의 길이 열려 1970년 제6차 이민 210세대 약 천 이백 여명이 한국 개발공사의 주선으로 이민이 실현되었다.[47] 1970년 이후 기술자 개인별 초청을 통한 이민이 있을 뿐이지 단체이민은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에 이민 온 한인들이 브라질로 재 이주해 온 불법 입국자들이 늘어났다. 1981년 12월부터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내주었는데 이때 제3국에서 대거 브라질로 이주했고, 1989년 6월 다시 한 번 불법 체류자들에게 임시 영주권을 내주었고, 또한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한 후에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점점 늘어갔고, 이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브라질에 들어오고 1989년 이후에 2009년까지 두 번의 사면령으로 브라질에서 합법적인 거주를 하는 한국인들이 늘게 되었다. 브라질 연방경찰국 통계로는 2009년 2월 현재 합법적인 신분으로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24,950명으로 발표하고 있다.

2. 이민자의 생활

브라질 이민 한국인들이 브라질에 이민하게 된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에서이다.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민을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한국 정치와 사회의 불안에서 브라질 이민을 선택하였고, 또 하나의 이유는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외국에 나가면 잘 살게 되겠지 하는 기대와는 달리 새로운 환경과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얻고자 할 때 치러야 할 엄청난 긴장과 해결해야 할 문제와의 갈등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브라질로 이주했다.

---

[46] 브라질 한인 상공회의소편, *브라질과 한국인* (상파울루: 한인상공회의소, 1986), 69.

[47] Ibid., 71.

이민자들의 이민의 동기는 현지에 도착을 하면서부터 깨지게 되었다. 정치적인 문제는 없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는 너무나 큰 문제였다. 초창기 이민은 거의 농업이민 이었으나, 환경과 여건이 뒤따르지 않아[48] 그 누구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옷을 파는 장사를 하게 되었고 옷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한두 명씩 시작하던 제품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 옷을 만드는 봉제업에 대부분 한국 이민자들이 종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1970년 정식 이민이 끝난 후로는 대부분이 파라과이를 통해 밀입국을 하였고, 이들 대부분이 봉제업을 하거나 옷을 납품하는 일을 하였으며, 후에는 옷가게를 차렸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자녀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자녀들도 대부분이 부모들과 함께 밤늦도록 일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다행이라 생각했으며 대학교에 간다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이렇게 시작된 제품공장은 현재 상파울루에 1999년 현재 1200여개 가까이 되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고, 2세 대부분이 대학교에 진학하여 초창기의 이민의 꿈들이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49]

제 6 절 브라질의 한인교회

한국 이민의 특징은 그들이 어느 국가, 어느 사회에서든지 예배 처소를 만드는 일이다.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출발했다가 신앙공동체의 집단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 지역 교회당을 빌어 예배 공동체로 확대시키는 것이다.[50] 브라질 한인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민교회도 한국교회와 마찬가지로 분열의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

1963년 8월 둘째 주일에 한인 교민회인 꼰셀레로 후루따도 208번지에서 약 20여명이 모여서 정광득 목사의 인도로 첫 한인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

48 브라질의 농업은 땅이 넓어 기계 농사를 해야 하는데, 한국과 같이 손으로 하는 농사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뒷받침이 없어 대부분이 농사를 포기했다.

49 유충선, *협력선교를 위한 브라질 한인 교회의 역할*, 33-34.

50 고환규, "해외 한인 사회속의 교회와 선교", *기독교사상* (1988년 11월호) 26.

초 교파적인 연합교회이다.[51] 이후 한인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연합교회는 리베르다지에 있는 일본 감리교회를 빌려 이전하게 되었고, 김계용 목사가[52] 부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 후 교파 간의 차이와 갈등으로 마찰과 분열이 일게되어 일부 그룹이 권순국 장로를 중심으로 히오 브랑꼬 34번지에서 있는 독일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므로 한인 중앙성결교회가 1965년 10월 17일 탄생하게 된다.[53]

중앙성결교회에서 1968년에 정길수 목사를 주축으로 한 성도들이 상파울루 예수교 장로교회를 세웠으며 1969년 상파울루 교회는 한인교회로 갈리면서 상파울루 교회는 없어진다. 그리고 1970년 연합교회의 노덕운 장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서울교회가 탄생하게 된다. 서울교회에서 신일교회와 영락교회가 나오게 되었고, 신일교회에서 성산교회가 나왔으나 성산교회는 1987년 서울교회와 연합하게 된다. 1971년에는 중앙교회에서 대한성결교회가 나오게 되었고, 1986년에는 은혜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으며, 대한성결교회에서 새소망교회와 순복음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제일교회가 생겼다.

한인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수행하지만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땅에서 엄습해 오는 소외감과 고독감을 맛보게 되는 이민자들의 어머니요, 선생이며 안내자, 상담자 그리고 저들의 위로자의 역할까지 감당해 왔다. 또한 이방 땅에 내딛는 첫 시간부터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주택을 구하는 일부터 생업을 구하는 일, 심지어는 자녀들의 교육문제까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교회는 이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 줄 수 있었고, 교회에 와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한인교회는 이민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왔지만 분열과 다툼의 오점 때문에 신뢰도를 상실하게 되었다. 송인규 목사는 “교회의 분립이 일반 교민

---

[51] 이인길, 659.

[52] 김계용 목사는 남미 선교사로 상파울루 연합교회에서 시무하다 LA에서 영락교회를 개척한 후, 북한에서 의문사함.

[53] Ibid., 662.

사회의 스캔들로 등장하여 복음 전도의 길이 굳게 막혀 버린다."고 하였다.[54]

교회의 분열의 요인을 안디옥교회에서 시무했던 계만 목사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신앙심도 없고 교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제직으로 임명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교회를 소란케 한 것 이라고"[55]말했다.

또한 강성일 선교사는 분열의 요인을 "첫째는 교역자의 잦은 이동이요, 둘째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교인들 간의 경쟁이 교회에까지 영향을 주었고, 셋째는 교인들의 교회관의 무지 때문이며, 넷째는 교역자들의 편애에서 오는 편파적인 감정"때문이라고 했다.[56]

브라질 한인 교회의 분열로 인해 생긴 교회가 개척교회를 포함해서 50여 교회에 이르고 있다. 교회가 늘어난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교인들의 상호간에 화합이 부족하고 분열이 심했다는 것이다. 교포교회는 아직도 분열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개 교회가 예전과는 달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었고 교역자들의 노력으로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으며 분열보다는 연합을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교회가 서로 교류를 통한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전도와 선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제 7 절 브라질 새소망교회

1. 교회가 위치한 지역 상황

"브라질의 한인 진출은 1962년 해외이민법 공포 이후 자발적 이민 역사의 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브라질 교민 80% 이상이 의류업에 종사하며 중요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 해외로의 진출을

---

54 송인규, *디아스포라의 현주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4), 26.

55 계만, "남미 한인교회의 정착 역사와 전망", *기독교사상* (1988년 11월호), 71.

56 강성일, *브라질 한인교회의 선교실태와 그 전망* (장로교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43.

꿈꾸게 됐다. 당시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남미의 여러 나라들을 첫 번째 해외진출 대상 지역으로 선택했고, 1961년 12월 브라질에 `문화사절단'이란 이름으로 이민을 위한 사찰단을 파견했다.

이를 계기로 마침내 1963년 2월12일 브라질 산토스 항 도착으로 시작된 남미 이민 역사는 만 40년을 넘기며 반세기로 접어들고 있다. 한때 6만명을 넘나들었던 브라질 교민수는 지금도 4만명을 헤아리고 있다.

70년대 이후 상파울루에 진출한 한인들이 봉헤치로 지역을 중심으로 의류상가를 시작했다. 곧이어 유대인 상가인 조셉 파울리노 거리와 아랍 상인 들의 지역인 브라스 구역의 오리엔찌 거리로 진출했다. 당시 이 곳에 다른 민족이 도전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지역에 진출한 한인들은 가게를 임대, 소매업을 시작하다 이제는 도매업까지 진출했다. 현재 브라질 한인들의 가게는 약 2천개에 달한다. 가게마다 7～8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브라질 주민을 고용하여 물건을 생산한다. 한인들은 오랜 고생 끝에 한인하면 의류업을 연상할 정도로까지 성장했다.[57]"

브라질 상파울루 새소망 한인 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봉헤치로와 브라스 가운데 브라스에 위치하고 있다. 브라스는 지역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여 의류업에 종사하는 상업 지역이지만 문화 공간이 전혀 없으며 거리도 정돈 되어 있지 않은 시장 거리로서, 환경은 그리 좋지 못하므로 교인들 다수가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그들이 사는 곳은 주거 환경이 깨끗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교회가 위치한 곳은 한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아서 교인들 가운데 평균 3-4회 이상의 강도를 당하였을 정도다. 때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 치안이 매우 좋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2.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새소망 교회는 1984년 12월 2일 박재호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이민 목회를 지향하는 성도들에 의해 세워졌다. 박재호 목사의 탁월하고 강력한 리더십은

---

[57] "브라질의 한인" *연합뉴스* 2004년 11월 11일 인터넷판, http://www.yonhapnews.co.kr/

교회를 지금까지 브라질에 세워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단단하게 세워져 갔다. 특히 박재호 목사의 한국에서 경험은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박재호 목사는 사회생활을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익혔던 탁월한 행정력이 새소망교회의 부흥의 힘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박재호 목사는 한국 성결대학을 굴지의 대학으로 키워낸 실질적 장본인이었다. 이처럼 박재호 목사는 행정가로서 신학자로서 터득한 그의 모든 것을 새소망 교회에 접목시켰다.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준비시키셨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초기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과업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남미 선교와 브라질 한인 목회를 위해서 박재호 목사를 준비시키셨고 새소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새소망 교회는 두 번의 성전 건축을 이루어서 넉넉한 예배 공간과 부속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30만평의 거대한 부지에 새소망종합선교센터인 "세미네"를 건축하여 브라질 상파울루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영혼의 안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회는 매년 성장을 거듭해서 현재 장년 신자 600여명과 어린이, 학생, 대학, 청년부 300여명을 합해서 1,000여명에 가까운 신자가 있다.

특히 "새소망 교회는 각 찬양대 7개와 관악대,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각종 악기 합주단을 보유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이며, 지역 봉사를 위해서 각종 구제 사업과 특히 논문에 주된 연구의 기초가 될 새소망 노인 복지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58]

58 "새소망교회 연혁", *새소망교회 홈페이지 교회소개*, http://www.ssmbr.org (accessed 5 June 2009).

제 3 장 노인의 신학적 이해

교회의 노령자를 위한 복지사업은 노인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신학적 이해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없고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일 수 없게 된다. 노인의 신학, 노령자에 대한 신학적 관점은 성경의 노인관을 근거로 하고 있다.[59]

노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서 노년이란 특수한 생의 도전에 대하여 새로운 응답을 들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인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절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노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창1:27)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사람이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누구든지 아름답게 살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존재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사람 자신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나이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고 멸시를 받을 수 없다. 노령이 되어 신체적인 외형의 모습은 변할지라도 사람의 가치는 그대로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할 때에도 축복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다.[60]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저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사46:4) 따라서 노인은 노쇠하고 활동이 감소되고 삶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주안에서 떳떳이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은 어떤

---

[59] 이홍배. "고령화 시대의 노인목회," *복음주의 실천신학 논총* 제4권 (서울: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2002), 84.

[60] 이은규. "노인목회를 위한 노년의 삶," *복음주의 실천신학 논총* 제4권 (서울: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2002), 67.

이유라도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노령자에 대한 복지 목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노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리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61]

제2절 노인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 분은 세상의 빛이셨고 그가 없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창조의 본체임을 선언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화육이란 사람의 육체를 가지셨고 또한 사람의 영혼을 가지신 것이다.[62] 그러므로 사회적,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노쇠한 사람일지라도 인간이므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함께 하시려고 그에게도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인간은 누구든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이상 인간의 존엄한 가치는 누구도 빼앗거나 박탈당할 수 없다.

제3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노인

신자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공의와 사랑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정에 이르는 구속 사건으로서, 사도요한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요3:16). 그 사랑에 대상에는 연령적, 세대적으로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랑으로 관계된 노년의 삶은 가치 있고

---

61 맹용길. *노인복지 목회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46.

62 박광선 *A Critical Study of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Presbestery*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103.

존귀하며 존경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노년의 삶에는 중요한 사명과 할 일들이 주어져 있다.[63]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세대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그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신다는 점에서 바로 노인을 위한 목회 노인신학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제4절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지체 노인

헬라어의 '몸' (σ ω μ α)은 교회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다.(롬12:5; 고전10:16,17; 엡1:23; 2:16; 골 1:13,24) 그러므로 교회는 성육신의 확장이요, 그리스도의 보다 더 큰 성육신이다. 바울은 "떡이 하나이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전 10:17).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한 떡덩이가 떨어져서 나누어졌다는 사실로부터 그 결과 한 떡덩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이 여럿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고 주장한다.[6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젊은이도, 노인도, 자유자도, 종도 모두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한 지체로서의 신자는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는 아름다움을 입혀주고, 연약한 지체에게는 돌봐줌으로써(고전 12:23,24)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볼 때 교회가 노령자를 보살피는 일은 당연하고 의무이다.

제5절 노인은 하나님 지혜의 소유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은 그들이 신앙의 사람이었으며, 동시에 지혜의 소유자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들은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노년의 삶에서

---

[63] 김중은,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 (서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2000), 50.

[64] C. K. Barrett.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국제성서주석 제3권"* 박재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274.

이러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 했던 삶의 결실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것같이 오늘의 사회가 존재보다는 행동과 소유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문화는 과거의 문화와는 다른 문화이다. 과거의 사회에서는 축적된 노인의 경험이 중요한 지식의 근원이었다. 따라서 성경의 존경받는 신앙의 인물 중에는 노인이 많이 등장한다. 즉, 성경에서 오래 산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하는 자이고, 이러한 경험은 지혜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노인을 공경했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노인의 경험이 젊은이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식의 근원이 경험에 있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는가에 있는 사회의 기준 때문이다.

정보의 축적에 초점을 둔다면 노인의 경험은 무용한 것이 된다. 거의 많은 노인들이 현대의 빠르게 변하는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도 그것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지식이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는 진정한 교육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며, “인생이 학교”임을 말하고 있다.[65] 그는 참된 깨달음이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축적하는 교육에서 멀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인생이 학교임을 말하는 프레이리는 외적인 정보보다는 인간의 내적 경험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비록 노인은 최근의 정보는 지니고 있지 못하나,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지닌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노인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수많은 정보보다 더 훌륭한 것임을 인정하는 문화로 돌아가야 한다. 과거 기술문명의 발달은 인간 생활을 편리하게 하여 물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물질위주의 문화는 무엇이 참되고 옳은가를 구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부모와 친구를 살해하는 무서운 범죄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인간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오늘의 사회구조는 앞에서 무엇이 올바른가를 구별하는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은 지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지혜라는 말이 더욱 합당하다. 이러한 지혜를 노인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65] “노인목회”, *인터넷 네이트*, http://ask.nate.com/knote/view.html?num=432787 (accessed 24 November 2009)

노인이 젊은이보다는 삶의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때 우리는 노인의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 유대 문화에서는 나이와 지혜를 연결된 것으로 본다.

노인에게 중요한 사명은 자신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신명기에서는 이러한 노인의 역할을 기록하고 있다.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66] 고대 사회에서 노인의 위치는 지혜의 담보자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더나가 이러한 노인들의 지혜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시편 22편에 보면 한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한 개인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과거 신앙의 선조들의 삶의 지혜를 묵상함으로써 얻어진 결과였다.

선조들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 준 것이다. 노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66] 신명기 32:7.

제 4 장 노인의 성경적 이해

교회의 노인복지 서비스의 프로그램은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배경을 갖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으며 오히려 건강한 교회를 해치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근거는 성경적이어야 한다.

성경 속에서 노인들을 향한 목회에 힘써야 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이해시키고 있다. 노인은 육체적으로 노쇠하나 체험적 신앙과 인내로 영적 성숙함에 이르며,[67] 영광스러운 존재,[68] 지혜의 상징,[69]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노인은 귀한 존재인 것이다.[70]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노인복지를 실시하여 하여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교회의 사역인 것이다.

교회는 성경 속에서 노인을 이해하고 늘어나는 노인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또한 사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여러 면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올바른 이론과 방법을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한다.

제1절 노인 목회의 성경적 고찰

"노인들이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들의 존재를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을 노인을 위한 목회라고 Heije Faber는 말했다.[71] 성경에서는

---

[67] 고린도후서 4:16.

[68] 잠언 16:31.

[69] 욥기 15:10; 신명기 32:7.

[70] 이정효, *기독교 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2), 37.

[71] Heije Faber, Striking Sails: *A Pastoral-Psychological View of Growing Older Our Society*, trans, Kenneth R. Mitchell(Nashville Tennessee: Abingdon, 1984), 146.

노인에 대한 표현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고 있다. 성경에서 노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나이를 보면 북 왕국 이스라엘 남 왕국, 유다 왕들이 누인 수명들로 이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수명이 얼마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하였고, 레위기 27장 1절에 서원에 관한 법령을 보면 60세를 장년과 노인의 구분으로 삼았다. 이러한 표현들은 노인의 특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

1. 구약성경에서의 노인

구약에서는 노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나 노년과 관련된 말씀이 250여 곳에 나오지만,[72] 그 설명이 체계적이지 않다. 노인에 해당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용어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다음에 몇 단어이다.

1) זקן(zāqēn)은 '수염이 희다'는 뜻으로서 60대 노인을 지칭하였다.[73]

2) שיבה(sēbāh)는 '흰 머리'란 뜻으로 70대 노인을 지칭하였다.[74]

3) ישיש(yāsis)는 '나이 들어 존경할만한' '덕망 있는'[75]이라는 뜻으로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76] 노인이라는 연령적 구분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서원에 관한 법령에서 60세를 장년과 노년의 구분 점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다.[77] 그러므로 구약성경을 중심한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노인을 모발 및 수염이 희어지고 기력이 쇠퇴해 가는 60-80대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8]

---

72 이은규, "성경에 나타난 노년의 생애 연구", *두란노서원 목회와 신학* (1994년 5월호), 61.

73 창세기 48:10; 사무엘하 19:32; 욥기 12:20; 시편 72:18; 예레미야 6:11.

74 창세기 15:15; 열왕기상 14:4; 시편 71:81.

75 욥기 12:12.

76 류영기 편, "노인" *성서사전*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1960).*

77 전요섭, "발달적 위기로서 노인의 심리 이해와 목회적 돌봄," *복음주의 실천신학 논총* 제4권 (2002년), 32.

78 류형기 편, *성서사전*, 140.

성경에서 장수는 축복이며,[79] 노인은 지혜의 상징[80]으로 공경하라고 명령하면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장수와 축복, 존경과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나며, 부정적인 면은 신체의 노쇠에서 오는 연약함과 우울한 모습니다. 구약에서 나타난 노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노인은 존경하고 공경할 대상이었다.

שׁישׁי(yāsis)는 '나이든, 존경할만한'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십계명의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81]는 말씀은 노인의 사회적 보호가 가족에 의해 보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늙은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대접을 받으면서 사회에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을 공경하며"하였고,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노인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공손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82]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노인을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신명기 28장 50절에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들 돌보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노인을 돌보지 않는 민족을 흉악한 민족이라 하였다.[83]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에 대한 존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으로서 종교적 삶에 있어 본질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노인을 지혜의 상징으로 표현하였다.

지혜는 노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것을 말한다. 잠언과 전도서의 배후에 있는 지혜의 교사들은 대체로 노인들이었다. 지혜는 노인들의 유산이다. 또한 장로는 노인의 권좌를 말하는 것으로 종교적 기능에서

---

[79] 창세기 15:15; 출애굽기 20:12.

[80] 욥기 15:10; 신명기 32:7.

[81] 출애굽기 20:12; 레위기 19:3; 신명기 5:16.

[82] 이은규, *노인목회를 위한 노년의 삶*, 63.

[83] 홍종각, *노인문제와 그에 대한 교회 참여 방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116.

지도자였던 것은 물론 가족과 부족의장이었으며, 정치 자문기관의 의장 위치에 있었고, 싸움의 지휘관으로 재판관으로 권면관으로 그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노인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 때문이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라고 하였다. 또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충성했던 노인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청년들과 의논하므로 나라를 잘못 인도하고 쇠퇴의 길로 갔음을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서 노인을 지혜의 상징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셋째는 노인은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기쁨과 축복이다. 잠언 16장 31절에 "영화는 백발의 면류관이요..."라고 하였고, 잠언 20장 29절에서는 "젊은 자의 영화는 그림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의 백발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참다운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장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84] 히브리 사회에서 노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놀랄 만한 위치에 있었다.[85]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영광이 백발에서 나타나며, 거기서 참다운 인생의 과정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시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시기이며, 참다운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지 고통이나 소외의 시기가 아니다.[86]

넷째는 노인은 가르쳐야 하는 영적 특성이 있다. 시편 71편 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는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명이 있다. 늙음이 퇴화나 무기력 해 가는 현상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

---

[84] 신명기 4:40; 5:33; 11:21.

[85] Robert H, Binstock and Ethel Shanes (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New York: Van Nosrtand Reinhold, 1985), 132.

[86] 이은규, "노인목회를 위한 노년의 삶."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복음주의 실천신학 논총* 제4권 63.

원숙한 인격적 성숙과 영적 성숙의 시기임을 말해준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그의 나이 80세 때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다고 활용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지혜와 경험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도록 하신다.

다섯째는 신체적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다. 노인은 신체적으로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하여 사용하신다.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아가나이다"라고 했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라고 하였다. 또한 시편 71편 9절에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라는 말씀과 시편 71편 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권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노인의 외침이 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도 사용하셨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노인의 신체적 연약함도 사용했다. 노후에는 기력이 쇠하고 둔하여지며 기억력 상실의 현상이 나타난다. 눈이 흐려지고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녀도 낳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노인이 연약하고 활동력이 없다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축복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셨다.

구약에서 노인의 특징은 히브리어의 표현대로 머리카락과 수염이 희어지고 나이가 들었고, 기력이 쇠퇴하는 60세 이후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인은 덕망 있고, 존경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성경은 노년까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경건의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곧 장수는 계명을 잘 지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보고 있다.[87] 그러므로 장수자인 노인에게 먼저 공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백발은 허약의 표징이 아니라 명예의 표지로 간주되며[88]

[87] 창세기 15:15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날에 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89]

이처럼 구약성경에서 노년을 지혜와 슬기로 위엄과 영광으로 가르침과 동시에 판단을 베푸는 자로 공경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노인공경 차원이나 효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인이 갖는 가치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에 비추어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이룬 성장과 성숙, 그런 늙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이해이다.[90]

2. 신약성경에서의 노인

헬라어에서는 노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 게론(ɣ ἐ ρ ω ν)은 '나이 든'이라는 뜻으로 자녀의 출산이 불가능한 노인으로 표현하였다.[91]

2) 게라스(ɣ ή ρ α ς)는 '노쇠', '노년'으로 나타났다.[92]

3) 프레스뷔테스(π ρ ε σ β ύ τ η ς)는 '늙은이', '연장자'[93] 의뜻으로 나타내고 있어, 노령으로 자녀 생산의 능력이 없는 생리적 노령과 연령적으로 연장자를 말하고 있다.[94]

또한 장로를 의미하는 프레스뷔테로스(π ρ ε σ β ύ τ ε ρ ο ς)는 문자 그대로 그 완숙함과 지혜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95]

신약성경에서의 노인을 향한 태도는 구약의 사상적 배경을 벗어나지 않으며

---

88 잠언 20:29

89 이사야 3:5; 예레미야 애가 5:12.

90 이은규, *성경에 나타난 노년의 생애 연구*, 63.

91 요한복음 3:4.

92 누가복음 1:36.

93 누가복음 1:18; 디도서 2:2; 빌레몬서 1:9.

94 이성호 편, "노인" *성구대사전* 제1권 (서울: 혜문사, 1968).

95 C. Peter Wagner, *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교회성장을 위한 지도력*, 김선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22.

십계명의 5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구약의 계명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고, 이러한 정신은 바울서신[96]에서도 이어진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중요시하였는데,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을 교회의 의무로 여겼으며, 특히 늙은 과부를 돌보는데 힘썼음을 볼 수 있다.[97]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고 하여 노인을 향한 순종과 공경이 자신의 부모만을 위한 효의 차원이 아니라 교회적이며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순종은 늙은이에 대한 동정이나 구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윤리적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로’ 약속한 신앙적 행위로 보고 있다.[98]

또한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종말적인 징조로 노인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는 풍조가 있을 것까지 경고하고 있다.[99] 순종과 공경의 태도는 노인을 돌보며 부양하는데서 더욱 잘 드러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복음을 전하고자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모를 부양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 어머니로 모실 것을 부탁하였고, 사랑하는 제자는 그 날부터 마리아를 모시게 된다.[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마지막 자리인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양을 당부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 번 가르쳐 주는 대목이다.

또한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

[96] 에베소서 6:1-3.

[97] 사도행전 6:1.

[98] 디모데전서 5:4; 에베소서 6:1-3.

[99] 디모데후서 3:1-5.

[100] 요한복음 19:25-27.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여 노인이 육체적 노쇠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과 신앙의 영원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하고 있다.[101]

3.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노인

노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다.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그가 가진 능력과 기술, 힘으로 판단하는 현대사회의 세태를 완전히 배격하고, 오직 사람은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의 고하를 떠나 존재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인간이 사회적인 활동력이 왕성하고 따라서 권력이나 부, 건강 따위의 가치가 충분한 청·장년기에는 그의 가치가 귀중한 반면에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력도 없으며 노쇠한 노년이라 하여 결코 그의 가치가 감소되거나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경은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연약한 처지에 놓일 때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더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약자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구약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셨고, 신약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102]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될 때 그 선교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가를 암시해 준다. 교회는 영혼의 구원과 동시에 육체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도록

---

101 이은규, *노인목회를 위한 노년의 삶*, 65.

102 누가복음 4:18.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약자를 돕는 마음이 노인에게로 향할 때 그것이 진정한 봉사적 기능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교회가 오늘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를 찾으려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어렵지 않게 노인문제가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노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미 약자가 되었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차적 복음전파의 대상이다.

4. 종말론적 측면의 노인

구약성경에서는 인간이 삶의 종말에 이르게 되면 추수 대의 곡식 단 같이 운반될 것이고[103] 장수하여 노년의 행복한 때를 마치면 그의 선조의 곁으로 갈 것이며[104] 그에게 정해진 삶의 연한에 달하게 되면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이 가야할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105] 이와 같이 죽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까닭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죽음의 노예가 되어 일생을 고민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노인들의 죽음이란 사람의 종말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106]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107] 이렇듯 신앙을 가진 노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한다. 노인들은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극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날마다 거듭난 생활을 통해 인생을 값지고 보람 있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

[103] 욥기 5:26.

[104] 창세기 15:15.

[105] 열왕기상 2:2.

[106] 히브리서 11:13-16.

[107] 고린도전서 15:20.

제 5 장 노인 복지의 정의적 이해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락, 경제적 보장의 조건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을 성취하도록 돕는 사회의 노력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노인복지는 국민의 일부인 노인의 만족할만한 생활 유지를 위하여 계획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분야이다. 노인복지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 통합되도록 필요한 공적, 사적 차원의 조직적인 제반활동이다.[108]

제1절 노인복지의 의의

노인복지는 노인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정의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노인이 속한 국가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는 것을 건강한 노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109]

이처럼 노인생활의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호지원 문제가 노인복지에 내포되어 있으며, 노인복지에는 모든 측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노인의 생활 속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는 노인이 복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의

---

108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dokhakse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741 (accessed 30 November 2009)

109 아산사회복지재단, *노인복지연구*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1985), 467.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로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을 위해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함으로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1.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는 대상에 따라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광의의 노인복지는 모든 노인이 생활상의 안정, 교육, 취업 등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적 정책을 의미한다.

협의의 노인복지는 퇴직, 빈고, 질병 등 제 요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 곤궁, 고독, 욕구, 불만, 삶의 보람을 상실한 노인에게 개별적인 공적 부조, 생활지도, 자립조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보호나 육성, 갱생을 위한 일련의사업과 노인 개개인이 즐겁게 생활하고 장수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10]

이 두 가지 개념 중에서 현대사회에서는 광의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지는데, 즉 노인복지는 단순한 구빈사업이나 보호의 개념이 아닌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중받고 역할과 지위를 유지함으로서 삶의 보람을 갖도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111]

오늘날 노인복지 대책은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 직업, 주택, 가족생활, 의료, 위생, 교육, 문화, 오락 등 사회생활 전반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정책 전체를 의미한다.[112] 종합해보면 노인복지란 노인생활의 경제적 측면, 정신적 측면 등 다양한 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노인생활의 일부만이 아니고 전체 생활면에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의 활동과 범위는 노년기를 맞이하여 생활의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질병(노인병), 빈곤, 고독, 소외, 무위 등 생활면에서의 원인을

---

110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2), 109-110.

111 Ibid., 47.

112 김규삼, *노인복지론* (대구: 학문사, 1983), 56.

배제하고 노인 스스로가 건전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취해지는 현실적인 보호와 미래사회에 대한 미래지향적 예방을 위한 서비스 활동이 그 중심이 된다.

장인협과 최성재는 노인복지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113]

첫째, 노인복지는 범위는 생활주체의 범위로서 사적 및 공적조직이 모두 포함된다. 그 활동이 적어도 계획에 의하여 조직적 또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적차원이든 사적차원이든 간에 모두 노인복지의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

둘째, 개인이 다룰 수 없는 욕구나 문제의 범위는 그 시대와 사회에서 다룰 수 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 다루어지는 노인의 욕구 및 문제의 영역은 생물학적 및 생리적, 경제적, 건강, 심리적, 사회적, 활동, 여가, 문화적, 정치적, 영적인 면이다.

셋째, 노인복지 활동의 방법에 있어서는 정책 및 계획과 사회사업 전문 기술적 개입방법(개별, 집단, 지역사회사업)이 포함된다. 즉 지역사회 또는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과 노인 개인 및 집단의 문제는 욕구를 전문직업적 기술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2. 노인복지의 기능과 역할

노인복지의 역할은 노인들의 욕구를 개인과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국가나 지역사회 또는 단체에서 개입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의 역할은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rikson은 인생주기의 각 단계를 하나의 '도전과 위기'(challenge and crisis)로 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적절하게 해결해야 다음 발달단계에서 잘 적응하고 건전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Erikson은 노년기에 해당하는 자아통합과 절망의 단계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평가하며, 지난 모든 삶을 통합하는 시기이다. 자아통합을 갖는 노인은 지나온 세월에 대해 별다른 불만이나 회한을 갖지 않고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부적응적인 노인은 직업 등에서의 역할상실, 경제적 어려움, 시대적 역경 등에 불만을 갖고 우울해지거나

---

113 장인협 ·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4), 267.

괴로워한다.[114]

Albert Dimmok는 노인의 욕구를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다.[115]

첫째, 음식, 옷, 건강을 위한 돌봄, 거처, 안정, 개인적 접촉 그리고 제한된 범주에서의 가사일 봉사와 같은 생존과 안정을 위한 대처욕구(coping needs)

둘째, 취미, 창조적 수고예나 또 다른 배움의 모험을 통해 성장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표현의 욕구(expressing needs)

셋째, 애정, 소속감, 다른 그룹과의 상호교류를 위한 기회, 그리고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가능성을 느끼는 친교의 욕구(followshiping needs)

넷째,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여의 욕구(contributing needs)

다섯째, 삶의 회상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는 일을 통해 무엇을 생산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아온 삶에서 얻은 통찰을 나누며 또한 존재하는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나눔의 욕구(sharing need)

여섯째, 자기를 초원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기 초월의 욕구(self-transcending needs)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욕구의 형태들은 그것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노인의 욕구는 발달 단계상의 특성상 매우 복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외에도 노인들에게 나타나는 욕구들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안정욕, 승인욕, 지식욕, 애정욕, 생존욕으로 크게 집약된다고 했다.[116]

성격심리학자인 A. H. Maslow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요구체계가 있는데 사람은 완전히 만족한 상태에는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부족을 느끼는 동물(wanting animal)이라고 보았다.[117] 그리고 L. B. Granger는 의식의 욕구, 건강의 보호증진,

114 이인정·최해경,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나남출판사, 1997), 180.

115 변선희, *노인욕구충족에 관한 복지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8.

116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1990), 32.

신체적 경제적 보장, 자기표현의 욕구, 신앙의 욕구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생활의 기본적 욕구 혹은 보편적 욕구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욕구를 인간의 속성에 따라서 다시 세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M. Kaplan은 노년기를 살고 있는 노인들의 욕구를 여덟 가지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해 보려는 욕구

둘째는 여가는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 하는 욕구

셋째는 자신의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넷째는 특정한 직업이나 성과를 올려보고 싶어 하는 욕구

다섯째는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여섯째는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욕구

일곱째는 가족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

여덟째는 종교적 신앙을 포함한 정신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로 노인의 욕구를 세분하여 설명하였다.[118]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여 하면 노인생활의 기본적 욕구 혹은 보편적 욕구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욕구

둘째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의 욕구

셋째는 가족관계의 안정의 욕구

넷째는 문화 오락에 대한 욕구(여가의 욕구)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국가나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노인복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인복지의 특성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는 타 사회복지분야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욕구의 다양성, 대상의 보편성, 대상의 증가성, 선봉사 후 수혜성을 들 수 있다.[119]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17 변선희, 9.

118 김성순, 45.

첫째, 욕구의 다양성이다. 사람은 성장과정에 따라 나이가 들수록 그 욕구가 다양해지는데 특히 노인이 되면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악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등의 문제와 후손들로부터 대접을 받겠다는 욕구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대상의 보편성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늙게 되고 따라서 조만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타 복지와는 다른 대상의 보편성을 띠고 있다.

셋째, 대상의 증가성은 현대사회는 인구의 자연증가와 의학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 등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기술개발, 산업화 정책, 정년제 등 인위적인 정책에 따른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노인층이 증가는 추세에 있다.

넷째, 선봉사 후 수혜성은 현재의 노인은 경제활동이 가능했던 활동 기간 중에 보험료 또는 납세 등에 의해 보험재정에 기여해 왔으며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오늘의 경제활동 인구층으로부터 부양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는 타 복지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노인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아래의 4가지 원칙이 있다.

1) 존엄성의 원칙[120]

노인에게도 모든 국민과 같이 신분, 직업, 연령,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경제적 지위로 인해 차별 받지 않는 인간적인 권리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개별성의 원칙

노인의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노인에 대한 일반화나 고정관념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연대책임의 원칙[121]

노인복지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노인 자신의

---

119 대한노인회, *노인복지 세미나 자료집* (서울: 대한노인회, 1980), 18.

120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서울: 홍익제, 1991), 65.

121 박기원, *교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19.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 책임의 대부분은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역사회, 가족, 이웃 등 모두가 공동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4) 노인의 연령별, 시대적 욕구반영의 원칙

노인은 60-65세, 65-80세, 80세 이상의 연령에 따라 욕구가 다르며, 오늘과 내일의 욕구가 다르며, 시대별 욕구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수시로 욕구를 조사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122]

노인복지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첫째로 존엄성, 독립성, 안정성의 유지

둘째로 선택의 자유제공

셋째로 충분한 사회참여의 제공

넷째로 정부의 책임인식

다섯째 변화하는 욕구에의 대응

여섯째 새로운 지식의 획득 보급과 적응의 필요성

일곱째 노인복지의 목표 및 목적의 우선순위를 노인 복지의 기본원칙으로 장인협과 최성재는 주장한다.[1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는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처럼 보편성과 다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인이 되면 건강의 악화와 경제적인 자립이 힘들어지게 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노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의 조성도 아울러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누구에게나 미래에 오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노인복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노인복지의 역사

---

[122] 김만두·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1993), 449.

[123] 장인협·최성재, 44.

노인복지의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해방 전까지는 시대별로 살펴보고, 현대 노인복지제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과정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노인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4]

1. 한국 전통사회의 노인부양

1) 삼국시대

(1) 노인보호사업의 개요

우리나라에 민생구휼행정이 역사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이다. 이러한 노인보호 사업은 중국문화가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발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양로사업은 삼국시대 이래 유교적 경로사상에 영향을 받아 역대 왕들이 행한 사업의 하나였다. 대개 임시적으로 군주가 노인들에게 은사를 내려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므로 백성들이 이를 보고 따르게 하는 것이었다.

(2) 노인보호사업의 내용

노인보호사업의 시토는 신라 유리왕 5년(서기 28년)부터 시작되었고, 왕명에 의한 급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한 경로사업은 흥덕왕 8년에 이르러 나타났다. 이와 같은 양로 사업은 노인사랑에서 비롯된 것인데, 신라에서는 국학, 원성왕 4년에는 독서삼품과가 설치되어 교육 제도상으로 경로사상을 진작시켰으며, 화랑도의 세속오계에 나타난 '효' 개념 역시 경로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구려에서 양로에 관한 시책을 을파소에 의한 구휼제도인 진대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춘궁기에 곡식이 떨어져 노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해서 춘궁기에 관청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에 환곡 하도록 한 것이다.

삼국시대에는 경로사상에 바탕을 둔 양로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125]

삼국시대 국가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적 개입은 매우 빈약했으며, 국왕의 노인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의 정도에 따라 당대의 노인문제 해결의 정도가

---

124 박차상 외 5인,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2), 71-76.

125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8), 87-89.

결정되었다.[126]

2) 고려시대

(1) 노인보호사업의 개요

고려시대는 불교를 숭배하면서 양로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갔다. 불교의 자비사상은 노인 구제 등 보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 노인보호사업의 내용

고려시대 노인보호제도에 대한 것은 성종 때 특히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고려시대는 건국초기부터 효도를 정치의 기본 이념으로 삼아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는 많은 정책을 실천해왔으며 다음에 네 가지 제도를 통하여 노인보호를 하였다.

첫째, 경로 고양사상은 성종 10년에 경로사상을 중요한 정책지표로 삼았으며, 원종 2년에는 양호할 자가 없는 자는 동서대비원에 수용하여 국비를 공급하여 부양하도록 하였다.

둘째, 급가(휴가)제도는 관리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는 관리에게는 문안, 병간호를 위한 휴가를 주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은 장례를 치르거나, 묘소를 돌보게 하는 휴가제도였다.

셋째, 현종 5년과 우왕 13년 때에는 노인에게 직위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넷째, 시정제도는 고령자에게 노인봉사자인 시정을 두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이미 고려시대에 현재 노인복지제도에서 실시되는 가정봉사원 서비스 개념이 있었다.

3) 조선시대

(1) 노인보호사업의 개요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배하였으며 이것은 인간윤리의 근본인 효도를 강조하였다. 또한 유교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나 향교, 서원 등에서 유교 교육을 실시하여 효도개념의 토착화를 전개하였다. 조선시대는 노인에 대한 양로사업이나 시책 등이

---

126 이혜원,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2000), 133.

싹트고, 본격적으로 발달, 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 노인보호사업의 내용

조선시대 노인보호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로연제도, 노인직, 치사제도, 노부모에 대한 특전, 기로소와 기로직 등이 있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로 양로연제도는 조선시대에 노인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시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였다. 양로연은 국가에서 노인을 위하여 개설하는 연회로서 매년 9월에 열 되 80세 이상인 자는 모두 참석하였다.

둘째 노인직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벼슬을 주는 것이었다.

셋째 치사제도는 나이가 많아 물러가기를 청하는 자는 그 청을 들어 주고 물을 것이 있으면 그들을 다시 부르게 하도록 정한 법이었다.

넷째 노부모에 대한 특전은 노부모가 있는 사람에게 특전을 주는 제도로 이런 자들에게는 병역을 면제하거나 노인에 대한 범죄를 사면하는 법이었다.

다섯째 기로소와 기로직은 전자는 왕이 정이품이상 되는 문관 중 70세 가을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후자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등용의 기회를 주고 우대하는 제도이다.

2. 근대의 노인을 위한 구호사업

1) 일제시대

1910년 한일합방이후 노인복지사업은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노인복지 시책은 식민지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위한 무마책이었고, 시혜 또는 자선적 성격의 단순 구호사업에 불과하였다.

1944년 3월에는 조선 구호령이 공포, 실시되어 극빈자와 무의탁 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생활보장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특히 조선 구호령은 65세 이상의 극빈 노인 또는 무의탁노인에게 필요한 생활부조, 의료부조 등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선 구호령 또한 일제치하에 있어서 명목 뿐이었음으로 법령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127]

---

127 장인협·최성재, 100.

2)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1945년 해방과 남북분단에 의한 미군정, 6,25사변 등 시대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 시기의 노인복지는 거의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는 전쟁 등으로 인해 요 구호 대상자가 급증하여 노인복지사업은 거의 무시되었다.

1948년 제1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헌법상 노인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었으나 이 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요 구호 대상자에 대한 임시, 응급적 구호사업에 불과하였다.

3. 노인보호에서 노인복지로 전환

1) 1960년대

1960년대는 4,19혁명과 5,16군사혁명 등, 정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경제개발 정책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점차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나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25조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생활 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구빈 차원에서 노인보호사업이 전개되었을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수준은 최저생계비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인구구조가 소산소사(小産小死)의 선진국 형으로 점차 변화되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나 당시 경제발전지향 논리에 의하여 정부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2) 1970년대

1970년대 초에 이르러 경제성장의 성과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노인 인구의 욕구도 다양하게 증대되기 시작하면서, 노인문제가 차츰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서

점차 인식되어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국가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고, 노인 단체의 존재나 활동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7년부터 생활보호사업에서 분리 실시된 의료보호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만 제공되었고, 65세 이상 원호대상 노인에게 노령생계수당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한편 1979년 보건사회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몇 차례의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 같은 해에 노인복지법 초안을 마련하기까지 이르렀다.

4. 노인복지제도의 확립

1) 1980년대

1980년대부터 노인 자신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와 사회가 노인 부양과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과 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부양의식의 변화를 배경으로 1980년 9월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로서 노인복지제도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의 내용은 의무적인 규정을 피하고 거의 선언적, 임의적인 것으로 그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실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의 입법 이후에 많은 사회변화가 일어났고, 노인복지 욕구도 다양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의 개정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그 결과 내용 자체의 변경은 없었으나 1984년 12월 15일에 노인복지법 재정 이후 개정이 최초로 개정 과정을 밟았다는 점에서 1차 개정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계속 인정되어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8호로 노인복지법을 2차로 개정하게 되었다.

2) 1990년대

2차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우에도 각 조항들을 분석하여 보면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 또는 노력 의무규정이 많았으며, 대통령령 또는

보사부령으로 위임된 조항이 너무 많다고 하겠다. 또한 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등 관련된 타법과의 관계가 제대로 조정되어 있지 않아 중복되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1993년 12월 27일 노인복지법이 법률 제 4633호로서 3차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 중 특이한 점은 유료노인복지사업에 민간 기업에나 개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의 공급기반을 다양하게 확충하고자 하였고, 또한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생활지원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재가 노인복지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내용 면에선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나 선언적인 성격이 상당부분 남아 있었다. 또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1997년 8월 22일에 법률 제 5359호로서 제 4차로 전면 개정되었다.[128]

3) 2000년대

2000년대는 1월 12일에 법률 제 6124호로 일부 개정이 되었으며, 97차 4차 개정의 법령과 비교해 본 결과 제 5조인 노인복지대책위원회에 관한 법이 삭제되었으며, 노인주거 복지시설에 대한 법이 신설되었고, 재가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가정봉사원의 교육과 가정봉사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률들이 새롭게 신설되었다.[129]

제 3 절 노인복지의 필요성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노인복지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노인에게 복지적

---

128 노인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index.jsp (accessed 5 November 2009).

129 박차상 외 5인, *한국노인복지론*, 71-76.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생존권 보장 및 존엄성의 측면이다.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130] 즉,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인은 욕구충족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둘째,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여건의 변화측면이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은 기본적 생존권이나 생리적 욕구충족 외에 자아실현의 욕구충족을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보다 연장된 노령기는 노인에게 보다 성공적이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하면서 만족스러운 발달과업이나 자아통합 감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원 수의 감소, 장남 부양형태의 변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은 노인에게 복지적 차원에서 과거와 달리 국가나 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 가는 형상 또한 모든 노인에게 노인복지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셋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요보호 고령노인의 증가 측면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경제적 빈곤함과 열악한 상황에서 처해있는 노인에게는 당연히 노인복지의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노인에게는 노인으로서 갖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 노인들의 요구는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질병과 장애 등이 심해지고 의존성이 매우 높아 가는 고령노인에게는 사회적 개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되고 특히 후기 고령자(old-old age) 노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상황에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은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다.

넷째, 문제의 예방적 조치의 측면이다. 문제발생 후의 치료나 해결보다는 예방적

---

130 헌법 제 32조, 제 34조 2항.

조치가 효율적이라는 이론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오랫동안 주장되어온 원칙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가장 비용의 투입을 요하는 부분이 노인복지 부문이고, 이로 인해 국가에 재정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복지정책에 있어서 비용의 효율성과 향상된 삶의 질을 위해서는 문제의 예방적 조치가 매우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노인문제의 발생 후 파생되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장기적 안목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131]

현대와 같이 복잡한 사회에서 노인복지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며 그 중에서도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현재 노인세대는 우리의 전통 사회적 가치관에 대해서 자식이 자원인 세대였으므로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하려 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변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자녀로서 본인의 노후와 자녀의 교육,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적인 난관,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인하여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제 4 절 노인의 안정성의 정착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룬 경제 역군으로서의 노인세대가 그저 수명만 연장할 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암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에게 최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132]

첫째,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 특히 노인은 황금시대를 지나고 이제 쇠퇴한 노인으로 상징되어 오히려 가족과 사회에 부담만 지우는 존재로 파악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 생애를 통한 인간발달의 단계론에 비추어 볼 때 인생의 초기단계에서 거동이 자유롭고 떳떳하게 성장하며 생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노인도 당당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

둘째, 가족구성원과 노인과의 관계를 그 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심리적

---

131 박광준,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세종출판사 1999), 143.

132 신수식, *사회보장론* (서울: 박영사, 1998), 123.

유대관계에서 상호 교환적 노인 복지관을 정립시켜 노부모와 자녀관계가 위험에 빠지려 할 때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하는 위약한 위치에 서게 되는 측이 노부모이다.

셋째, 노인과 가족 관계에 있어서 세대차이의 감소 혹은 세대 간의 거리를 보다 더 좁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변화하는 시대와 주변세계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사회적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 사회자원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인복지관이 발전되고 자녀들과 동거여부를 막론하고 가족 내에서 노인의 적응수준이 향상되며, 부양하는 젊은 세대들의 어려움도 감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일보 되어야겠다.

넷째, 바람직한 경로효친 사랑의 고취는 아동기의 사회와 과정에서부터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다섯째, 노인들의 의존욕구 및 동기체계와 가족 부양책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노인들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노인들의 거주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형태는 동거, 근거리 별거, 양로시설 입원 그리고 집단노인시설 입주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노인들이 일생동안 지녀왔던 직업, 생활습관, 사회적 역할, 활동의 정도, 정신건강의 수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적절한 주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곱째, 노동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가져 여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인사업장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상과 같이 여러 요구를 위한 노인복지 정책이 필요하겠다. 젊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살아왔다 해도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년을 그저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간다면 노인자신도 불행하지만 오늘의 젊은이에게도 희망이 없는 사회인 것이다.

그로인해 사회적 인식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경제적인 부만 축척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된다면, 도덕적으로 이상을 제시할 수 없는 타락된 사회가 될 것이다. 정부는 노인의 문제를 이제 더 이상 가정이나 가족의 문제라는 인식과 시각에서 탈피해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고 복지국가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그저 희망 없이 수명연장을 위해 살아가는 요인에 대한 투자가 아닌 내일의 우리 젊은이에게 희망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데에도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 5 절 노인복지의 내용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실천목표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으로는 1981년에 제정되고 1989년과 1993년에 각각 개정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노인복지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노인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와 특별히 보호를 요구하는 요보호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규정함으로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도록 하는 적극적 시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빈적 성격의 보호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이렇다 할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차원의 노인복지가 빈약한 이유는 그동안 노인문제는 주로 자식에 의한 노부모 부양의 차원에서 해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노인의 생활상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원조는 가족에 의해 보장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주로 장남이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부양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직업분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 변화의 결과 그러한 규범은 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모실 수도 있다는 식의 새로운 규범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회여건의 변화는 지속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 가족해체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은 더욱 저하 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우리 사회의 급속한 변동으로 인해 노인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 즉, 빈곤하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최저생활의 보장을 해주고, 건강하고 수입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취업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활력 있고 보람된 노년기를 보내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여가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건강하지 못한 중산층 이상의 노인에게는 다양한 유료 재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 노인인구의 기초적 욕구조차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건복지 가족부의 정책에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내용은 사회복지의 체계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복지 서비스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 소득보장

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개인에게 최소한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보장제도의 체계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수당의 3가지 사회보장방식에 의하여 구성된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한 간접적인 형태의 소득보장방법도 다양하게 있다.

또한 소득보장제도는 의료, 주택, 노인복지서비스, 고용 등 사회복지의 제반 영역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시장 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과도 복합적인 역동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거의 대부분 나라들은 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보장을 노인복지제도 중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금제도가 소득보장의 중심적 수단이 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국가보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을 위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군인연금, 생활보호, 퇴직금 등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혜 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지급 내용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사적연금 제도가 도입 되었으나 현재 노인들을 위한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노후의 소득보장은 주로 노령연금제도와 공적부조제도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133]

2. 의료보장

의료보장이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전체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에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켜 의료비용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을 전체국민이 공동 책임짐으로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사회연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134]

우리나라에는 노인만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는 없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료보장제도는 노인들에게 병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제도는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되어가고 있다.

1993년부터는 사회복지기관에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건강진단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시작이 되어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제한된 수혜대상 및 진단과목, 부정기적 실시일정 등의 문제와 1차 진단에서 유병상태가 확인되었을 경우 치료대책이 수반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병에 걸리기 쉬우며 일단 병에 걸리면 만성화가 되기 쉽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의료보험의 급여계산 제한을 1996년부터 완전 철폐하였으나 별도의 의료비 면제나 경감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노인의료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노인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임할 수

---

[133] 고양곤, *2000년대를 대비한 외국의 노인복지 동향*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65-74.

[134] Ibid., 15-39.

있도록 다른 연령계층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외에 노인들만을 위한 예방 및 치료,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오랜 요양을 요하므로 의료비의 면제나 경감 등의 서비스가 요청된다.

3. 주택보장[135]

주택보장이란 개인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한 일상생활의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의 건설과 공급, 그리고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하여 주는 제반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주택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적 및 심리적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주택보장의 필요성은 인생 주기 상으로 어떠한 시기보다도 매우 중요하다.[136]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노인이 자녀와 별거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주택보장에 정책적인 배려가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수용시설보다는 재가목적 주택보장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가목적 주택보장제도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 집 등 노인용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의한 직접적 주택보장제도가 있으며, 주택상속세 공제, 주택자금 융자 등과 같은 간접적 주택보장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에 국민연금기금에서 1,000억 원이 배정되어 유료노인복지주택 시설의 건립을 위해 융자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담보설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건설자 및 공급자를 위한 자금의 융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7]

---

135 Ibid., 83-85.

136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191.

137 Ibid., 213.

4. 사회복지서비스[138]

노인인구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 자아발달을 위한 욕구충족, 그리고 일상생활의 당면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금전적서비스로 정의된다. 노인은 비록 사회의 제 일선에서 물러나 중추적 역할을 할 수는 없으나, 심신의 건강한 노인에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기회,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는 기회, 학습의 기회, 취미나 오락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복지사업이 요청된다. 이러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취업알선, 노인클럽조성, 노인사회 봉사단체 활동 조성, 노인스포츠 장려 및 보급, 노인복지센터는 유급 전문직원의 지도아래 성인교육, 오락, 건강 및 상담서비스, 정보제공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을 위하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우선 재가노인들을 위해서는 23개소의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노인정(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대다수의 노인정은 협소한 시설규모, 설비상태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노인을 위한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실시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제도나 공적부조제도 등이 제공하는 금전적 서비스와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국민생활의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들의 이러한 비금전적서비스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인의 역할상실 및 소외, 고독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139]

제 6 절 노인복지와 교회

1. 교회 노인복지의 필요성

---

138 이혜원, 385.

139 Ibid., 86-89.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의 선포(*Kerygma*), 사랑의 친교(*Koinonia*), 이웃에 대한 봉사(*Diakonia*)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들은 선교를 실천함에 있어서 이웃에 대한 봉사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의 성장은 최근 멈추었고 교인 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이다. 교인들은 위로 하늘만 쳐다보고 축복을 간구하는 기복신앙에 집중하고 아래로 이웃을 향한 봉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결과이다.[140]

성경에서 노년까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141]이며, 경건의 보상이며, 계명을 잘 지킨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142]로서 인식한다. 노인은 육체적으로 노쇠하나 체험적 신앙과 인내로 영적 성숙함에 이르며,[143] 영광스러운 존재,[144] 존경의 대상,[145] 지혜의 상징,[146]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노인은 주님 앞에 귀한 존재다. 또한 성경은 부모 및 노인공경을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일로 여겼으며, 노인을 돌보지 않는 민족은 흉악한 민족[147]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노인들의 영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고 노인문제를 전 교인에게 교육하며 교회 안의 노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노인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회의 노인복지에 대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과연 교회들이 노인들을 자신의 부모나 형제, 자매처럼 존경하며 사랑으로 대하고 있지 못하다.

---

140 고양곤,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 방향 기독교와 사회복지 노상학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한국 사회복지 연구소편 (서울: 홍익재, 2001), 286.

141 창세기 15:15, 출애굽기 20:12, 신명기 4:40.

142 출애굽기 20:12, 욥기 5:26.

143 고린도후서 4:16.

144 잠언 16:31.

145 레위기 19:32.

146 신명기 32:7, 욥기 15:10.

147 신명기 28:50.

한국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게 보내며,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목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선교에 대한 비전과 노인복지 서비스는 매우 한정적이다.

최근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교회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노인복지를 실제 시행하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

교회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노인은 문제를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고독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문제에 직면한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섬겨야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일반 노인들 역시 교회가 배려해야 할 사람들이다.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이란 '현대성'의 특징으로 인해 소외의 대상이므로 교회는 이들의 노후생활이 즐겁고 보람 있는 생활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노인복지 사업이 시급히 요청되는 공동체이다. 노인의 속성상 영원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고 죽음과 임종의 과정에서 교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 가정과 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며, 사회의 발전과 진전에 희생적으로 공헌한 노인들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배려하는 노인복지 사업이 교회에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성장과 미래에 대한 투자와 관심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노인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의 기간이 연장될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혹은 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한 사회적 요청으로 노인복지 사업에 교회가 더욱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148]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관해서 한 연구자료 표본의 23.8%는 매우 심각하다. 58.65%는 심각한 편이다. 15%는 보통이라고 인식한 반면 2.6%만이 문제가 없는

---

148 현외성,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의 활성화 방안, 교회와 노인복지* (서울: 기독교감리회 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 편, 2001), 252-253.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로 볼 때 절대 다수의 82.4%가 노인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목회자가 제직, 평신도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으며, 남자가 여자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인문제의 교회 개입에 대하여 86.2%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노인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13.3%는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반면, 0.5%만이 교회의 개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 다수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찬성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149]

2. 교회 노인복지를 위한 기독교적 접근 원리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하여 기독교적 접근이 시도되어야한다. 노인들은 신체적 연약함과 경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소외감과 고독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노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첫째, 노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 노인들에 대한 편견은 잘못된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 잡게 한다. 본질을 왜곡한 특수한 사례를 통해서 전체를 평가하며, 그것을 편견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노인들의 경험을 활용: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은 무형의 자산이다. 그들의 경험을 젊은이들에게 전수함으로 새로운 문화 계승의 계기가 된다. 이것은 전통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신앙적 자세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셋째, 노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 소외당하는 노인들을 신앙적 바탕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그들의 아픔과 고독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노인들은 물질적 자원보다 따뜻한 인간적 사랑을 갈망한다. 노인들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기 쉽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따뜻한 손길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독립적 자세를 격려: 노인들의 문제 가운데 경제적 빈곤은 매우 심각하다.

---

149 김성철, "NGO 입장에서본 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기독교 사회복지 8월호* (부천: 평화사회복지연구소, 1999) 134.

노인목회에 있어서 중요시해야하는 것은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노후 생활, 노후의 주거지, 노후 동거자, 질병 시에 간병인 등등의 문제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제는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자녀들에게 의존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고, 국가의 복지정책에만 무작정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150]

3. 교회의 노인복지의 특징과 문제

1)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의 특징

교회에서의 노인복지사업은 효율적이며,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노인복지 사업의 실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장애물이 있다. 하지만 교회는 노인복지 사업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여 노인들이 이 영생을 얻고 인간의 의미와 인간됨의 고귀함을 찾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노인복지 사업에 접근한다.

현재 기독교계에서는 노인복지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복지회관, 실비양로시설, 무료급식 등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51]

예장 통합교회의 경우 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회관, 노인정, 무료급식소,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재가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전국에 20개소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세군에서도 양로원, 요양원, 경로당, 거택보호, 노인휴게소, 무료급식소, 노인문제상담소, 한방진료소, 보건소 등의 노인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152]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회 노인복지 사업의 동향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150 권영규, "노인복지에 대한 성서적 이해", *신앙과 교육* 2000년 2월호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2000) 167.

151 현외성,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 활성화 방안.* 198.

152 Ibid., 201.

첫째, 교회 노인복지사업의 전체적인 수요나 규모에 있어, 교인이나 비종교인들이 생각하는바 한국의 기독교계의 참여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낮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계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회봉사, 전반에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쏟아야 한다.

둘째,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노인복지 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노인복지 사업과는 달리 사랑이 넘치는 노인복지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노인복지 사업이 예수님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반적인 노인복지와는 달리 기독교계에서만이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사업, 다른 기관이 선택하기 곤란한 부분이나 대상을 취급하는 노인복지 사업이 드물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호스피스, 치매 등과 같은 노인복지 사업 영역에 대하여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넷째, 개별 교회 단위로 노인복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교단이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노인복지 사업이 드물다. 또한 장기적인 노인복지 사업으로 거시적으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153]

2)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의 문제점

현재 많은 교회들이 노인복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경비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노인복지를 시작하고는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인복지 사업에 적극성을 띠지 못한다.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우선적으로 목회자들의 노인목회 및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문제다. 노인목회의 중요성은 노인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연장자로서의 노인들이 바른

---

[153] Ibid., 244-245.

신앙인으로서 그 가정에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 가정이 교회로 인도되고 가정이 복음화 될 수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예배에서 설교나 각종 모임에서 노인들이 가지는 영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든 교인들이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물론 교인도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사명을 깨닫고 교회안의 노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이들을 위한 목회활동 및 사회봉사를 실천하여야 한다. 교회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 중 많은 교인들의 인식부족으로 현대 사회가 젊은이들을 선호하고 중심이 되어서 젊은이들의 프로그램이 많으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연중행사에 그친다. 교회는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시설, 조직,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 교회가 노인들에게 관심을 두어야 할 근거로는 교회는 사회적 기능과 목회적 기능 그리고 선교적 차원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안의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 집단이 조직화되어 있으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수한 욕구를 지닌 노년부가 조직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면 노인들에 대한 투자는 다른 연령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말 할 수밖에 없다.

둘째, 노인의 역할 상실이다. 교회에서 노인들은 움직이는 모습보다는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점잖고 존경스러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노인들은 산업의 발달과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조기 은퇴하는 노인들이 교회 안에 증가하는데 이들이 교회에서 역할은 상실되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이 상실되어 노인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지어 신앙까지도 침체되어 있다.

셋째, 노인을 위한 전담 부서 및 전문 인력의 확보가 미비하다. 노인 목회나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전문기구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노년 부를 별도로 조직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 노인들의 신앙을 잘 지도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면과 영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경공부 반을 운영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회에 노인 프로그램 담당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를 두고 노인에 대한 전문적

관심을 가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교회의 노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결국 전 교인들에게 돌아갈 열매로 젊은 세대는 이와 같은 교회의 노인복지 노력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넷째, 교회의 노인 프로그램의 부재이다. 교회는 선교 및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평생 교육의 일원으로 노인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신앙교육을 포함한 사회교육 차원에서의 노인교육의 개념, 목표, 학습내용 등의 뚜렷한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의 영적 수준, 건강정도, 관심영역, 등 개인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노인에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의 교회이다.

다섯째, 노년부(노인학교) 설치운영의 미흡이다. 교회에서의 기관운영은 교회 부흥에 영향을 미치며 성도들의 성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노년부가 있는 교회는 2.6%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는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노년부(노인학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아 고령의 노인까지 장년 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섯째, 재정적 지원의 미흡이다. 교회에서 많은 예산이 유치부나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는 활용이 되고 있으나 노인을 위한 예산은 전체 1%이하가 49%, 1-5%이하가 40%로 전체예산의 5%이하가 89%로 교회의 노인을 위한 예산 집행은 극히 미미하다.

일곱째, 자원봉사대의 미조직. 교회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 없이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어렵다. 조사교회 70%이상이 자원봉사대 조직이 없으며, 91%교회들이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여덟째, 주간보호(Day-Care)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한국교회가 70-80년대에 육아 문제와 조기 교육을 위하여 교회마다 선교원을 세워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부모님과 교제하며 교회 성장을 가져왔다. 그런데 사회의 노령화로 인해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으나 교회는 노인들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로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화 시대의 문제를 위하여 교회에서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정부의 힘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바로 노령화의 문제를 교회의 주간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해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

4. 교회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회의 역할

1) 교회의 인적 자원의 활용 방안

자원봉사운동은 성경에 나오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자원봉사가 일부 특수계층이나 학생들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서 자연스러운 시민활동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자원 봉사실천 운동을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활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살아가는 복음의 실천운동으로 모든 인간이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삶의 여러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교회가 고통 받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동참하여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복음 실천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을 위해 교회와 기독교 기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제자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교회, 구역, 가정, 단위로 공동체를 구성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의 범위는 교회가 위치한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필요한 재정은 개 교회나 기관들이 자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지역 내 공동관심사일 경우는 지역 내 교회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교회 자원봉사활동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세로 실천하여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하실 때, 섬기는 마음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셨던 것처럼 교회 자원봉사도 섬김의 자세로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교회의 자원봉사활동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나 지역 사회주민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웃 사랑의 모습들은 오늘날 자원 봉사 활동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교회가 자원봉사교육을 교육함에 있어서 우선 목회자가 자원봉사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동시에 자원봉사에 관한 성경적 의의를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교육은 목회자가 직접 담당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목회자가 시간적으로 교육을 담당하기 어려울 경우 청년부 전도사나 외부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2) 노인복지에 임하는 자원봉사자 유의 사항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심신기능이 저하되고 역할 상실과 역할 혼란을 겪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접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봉사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봉사자는 평소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말과 태도로 봉사해야 한다.

둘째, 복장과 신발 등은 간호활동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것의 하나로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봉사활동을 하기에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먼저 생각해서 선택하여야 한다. 즉, 밝고 차분한 색으로 청결감이 있고 활동하기 쉬운 형태의 것이 좋으며, 치마보다는 바지 형이 좋다.

셋째, 방문 봉사의 경우 상대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한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밝힌다. 시종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지나친 겸손은 노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한다.

넷째, 노인과 대화 할 때는 노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짧은 언어로 천천히 말한다. 노인의 말에 귀찮아하지 말고 들어 드리며, 노인이 눈물을 흘릴 경우 대화의 내용에 주의하여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다섯째, 애매모호한 것은 무리해서 대답하지 말고 “생각해서 연락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잊지 말고 생각해서 꼭 연락한다.

여섯째, 봉사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해 실시하지 말고 노인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일곱째, 봉사활동으로 노인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없으므로 봉사자의

인적 시간적 물질적 한계를 인식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해야하며 지나치거나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봉사자가 노인과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만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전에 연락을 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봉사 활동 중에 알게 된 노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아홉째, 봉사활동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설명하고 봉사관계를 신중하게 종결하며, 자신의 봉사활동 결과를 기록하고 점검하여 평가하여 참고자료로 남긴다.

5. 교회의 노인복지의 실천 유형

교회의 노인복지 사업은 일반적으로 세 방법으로 실천될 수 있다.

첫째,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있다.

둘째, 교회가 자금을 지원하고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이행하게 하는 것이 있다.

셋째, 교회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필요한 인력을 모아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있다.[154]

1) 서울 덕수교회 지역사회 복지관

덕수교회는 1991년에 사회 선교관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복지관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55]

(1) 요보호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이의 목적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가서비스의 실행을 위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와 대상자의 문제를 파악하여 대상자로 등록을 시키는 일이다.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생보자 연명부'를 입수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천을 받아 무의탁 독거노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교회의 복지

---

154 맹용길, *복지목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7), 177.

155 덕수교회 지역사회 복지관의 자료를 정리하였다.

담당자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 및 상담을 하여 복지관의 사회부 워커들과 케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등록여부와 지급 서비스를 결정하고 요보호 대상자 카드와 생활 실태조사서를 작성한다. 이를 통해 재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며 질적 향상의 도모를 기대한다.

(2) 재가 노인 물품지원 서비스 제공

요보호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해 줌으로서 실생활의 안전을 도모한다. 담당 워커가 가정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각종 의약품 및 의, 식, 주 용품)을 구입하여 담당워커의 방문시 지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기대한다.

(3) 생일축하 가정방문

매월 생일을 맞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적절한 선물을 구입하여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지급한다. 방법으로는 요보호대상자의 생일을 기억하여 담담 워커가 직접 방문, 생일 축하선물을 지급하므로 대상자의 자존감을 높인다. 기대되는 효과는 요보호대상자의 자존감을 부여하며 담당 워커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4) 건강 요쿠르트 배달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야쿠르트 배달원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여 요보호대상자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비스대상자를 우선순위별로 선정하여 후원자와 결연하고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개발 서비스대상자를 확대함으로서, 대상자의 소외감 해소 및 건강향상과 야쿠르트 배달원의 간접교육으로 대상자 관리를 유도한다.

(5) 명절 선물 드리기

무의탁 독거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며 고기나 과일 등 대상자들의 욕구가 있는 물품을 선정 구입하여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는

대상들에게 명절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명절시 느끼는 대상들의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다.

(6) 겨울나기 연료비 지원

교회내외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후원자를 개발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탄, 석유 등의 연료를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도록 한다. 연탄 등 연료비가 과다 지출되는 동절기에 연료비를 지원하여 요보호대상자의 생활향상을 도모한다.

(7) 가정봉사원 파견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을 요보호 대상자와 결연시켜 가사, 정서, 간병, 의료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요보호대상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정봉사원 선발하여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문하여 가정봉사원과 대상자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가정봉사원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 전후에 사회복지사와의 전화 등을 통해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가정 봉사원은 정기적인 교육에 참여하여 효과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며 요보호대상자의 정서안정 및 생활향상을 유도한다.

(8) 은빛 나들이

등록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나들이를 통해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접하고 정서안정도모를 꾀하며 외출이 적은 노인들에게 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들을 중심으로 건강이 양호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원이나, 유원지, 각종 행사장 등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장소를 선정한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참석토록 하여 노인들의 안정을 도모하여 대상자 노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노인들과 자원봉사자간의 신뢰감을 형성한다.

(9) 고령자 취업알선 센터 운영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한 자원개발(동사무소, 구청,

민간사업체와 연계)을 한다. 교회복지관 및 지역사회에 놓인 작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지역사회 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해 자원하는 업체와 대상자를 물색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경제적 문제의 해결로 인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로 긍정적 자아감을 형성케 하고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자립의식을 가지고 보람 있게 살게 하며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0) 재가노인들을 위한 영양 밀 서비스

재가노인 중 식사하기 불편한 재가노인을 선정한다. 지역 신문이나 유선방송, 소식지, 홍보지를 통해 후원자를 개발한다. 담당 워커가 격월로 방문하여 영양 밀을 제공하여 노후에 식사가 불편한 재가노인들에게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게 한다.

(11) 노인 건강 교실

복지관내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하여 노인대학의 노인들과 재가 노인들, 지역 노인들을 모시고 치료기구를 활용케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물리치료에 참여케 하여 쇠약한 건강을 여러 물리치료기를 활용하여 체력을 증진시키므로 보람찬 노후 생활이 되게 한다.

(12) 밑반찬 서비스

교회의 여선교회 회원들의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거택노인과 재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식탁을 제공하기 위해 재가노인의 폭을 넓혀서 선정하는데 재가노인 선정 시에 일정한 규칙을 작성하고 방문 상담하여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회의 여전도회와 지역 부녀회를 통한 후원자 개발을 하며 분기별로 방문 전달한다.

(13) 김치 서비스

김장철을 맞이하여 교회 및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장 후원에 대한 자원개발을 한다. 김장 김치를 직접 후원하는 것이나. 현금 후원도 같이 지원한다. 준비된 김치는 담당 워커가 배포함으로서 재가 노인들에게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며 지역 주민과 교회들로 하여금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계기를 마련하며, 재가 노인들의 식생활 개선을 꾀한다.

(14) 목욕 위생 서비스

재가 노인들에게 1달에 1번씩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결한 위생을 유지시켜 활기찬 노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목욕 서비스 대상자를 방문, 상담을 통하여 선정하고 자원 봉사자를 지역 주민과 교회에서 모집한다. 월 1회 목욕 비를 지급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재가 노인들이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희망찬 삶을 살게 한다. 재가 노인의 위생 상태와 건강을 점검하는 계기 등으로 삼을 수 있다.

2) 전주 중부교회의 평생대학원 및 자원봉사자 파견 센터 프로그램 분석

(1) 평생 대학원

① 교육방침

첫째, 참된 노인의 가치관 확립

둘째, 교회생활의 충성

셋째, 바른 어버이상의 확립

넷째, 복음전파에 힘쓰는 사람

다섯째, 성경 읽기와 기도생활의 충실

여섯째, 노년기의 철저한 건강관리

일곱째,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

여덟째,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

아홉째, 영적 생활과 육적생활의 조화

열째, 이웃과의 사랑 나누기

② 학사 운영

ㄱ. 학생정원 매 학기당 150명 내외로 한다.

ㄴ. 수강 대상자는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남·여로 한다.

ㄷ. 수강 등록은 학기 초에 소정의 등록과 수강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 대상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ㄹ. 수강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6월말 까지, 제 2학기는 9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매주 화요일에 실시한다.

ㅁ. 하루일정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 교사회 09:30-09:50

찬양과 예배 09:50-10:30

제 1강의 10:40-11:30

제 2강의 11:40-12:30

점심식사 12:40-13:30

취미활동 13:40-15:00

ㅂ. 수업내용은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비중을 두고 다음과 같이 교과목 배정시간을 수립한다. 노인 건강 교육분야 35%, 노인 교양 교육분야 30%, 노인 종교 교육분야 20%, 노인 자율 관리분야 5%, 현장 견학 탐사 분야 10%.

2003년도 프로그램

1학기

표 3 중부교회 2003년 1학기 평생대학원 프로그램

순	날짜	예 배 인 도	교시	강 사	주 제	연락전화	식사조
1	3.11	김 동 건 목사	1	김동건 목사	개강예배와 강의	277-5835	6
			2	이성택 원장	학사안내	253-9689	
			3	김승수 교수	행복한 삶(3)	228-5228	
2	3.18	한 홍 석 목사	1	김진태 장로	적절한 경제생활	254-4678	7
			2	길봉섭 교수	인간과 환경	851-5009	

3	3.25	이 성 택 장로	1	임영호 소장	물과 환경	223-9430	1
			2	김종선 교수	내경에 나와 있는 건강관리	231-8705	
4	4.1	김 보 한 목사	1	김보한 목사	위대한 유산	284-4199	2
			2	김정석 국장	노인의 복지생활	285-8873	
5	4.8	이 민 행 장로	1	임병무 교수	몸에 맞는 건강법	285-6908	3
			2	김한희전도사	인생의 3대 질문	287-7015	
6	4.15	김 용 언 목사	1	손장진 교수	아름다운 삶	282-8631	4
			2	임재규 교수	자동차 문화	270-2321	
7	4.22	정수진 전도사	1	강봉근 교수	생활속의 하나님	288-3994	5
			2	김영식 교수	노인의 건강관리	833-4687	
8	4.29	봄 자연학습 (야외학습)					6
9	5.6	김 명 술 목사	1	김명술 목사	행복한 노년생활	283-4780	7
			2	최상기 교장	노래교실	652-8673	
10	5.13	이 병 우 목사	1	이병우 목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272-3367	1
			2	조옥자 권사	사랑의 풍선 만들기	252-7098	
11	5.20	강연희 전도사	1	김대현 장로	삶과 죽음	252-1605	2
			2	최태열 교수	얼쑤 우리가락	268-0851	
12	5.27	산 업 시 찰					3
13	6.3	신 현 철 목사	1	신현철 목사	하나님과의 대화	286-4469	4
			2	김문중 원장	알레르기성 질환	254-3687	
14	6.10	김완규 전도사	1	박철웅 소장	질병의 예방과 치료	203-6152	5
			2	박철웅 소장	질병의 예방과 치료		
15	6.17	정영주 전도사	1	은무일 교수	중국 문화 이야기	221-1011	6
			2	송호성 PD	아름다운 언어생활	243-0005	
16	6.24	김 동 건 목사	1	김동건 목사	1학기말 예배와강의	277-5835	7
			2	박애숙 원장	국악 한마당	901-8823	

2학기

표 4 중부교회 평생대학원 2003년 2학기 프로그램

순	날짜	예배인도	교시	강 사	주 제	강사 소개	식사조
1	9.2	김동건 목사	1	김동건 목사	개강 예배와 강의	본교회 담임목사	1
			2	이성택 장로	2학기 학사 안내	본원 원장	
			3	천희두 집사	노인의 건강생활	노송전주병원장	
2	9.9	최장의 목사	1	진근호 집사	치과 건강관리	고운미소치과원장	2
			2	이성택 장로	치매방지 스트레칭(태권무)	본원 원장	
3	9.16	김보한 목사	1	양진욱 장로	성인병 예방과 치료	예수병원병리실장	3
			2	김일선 권사	건강 노래 부르기	본원 음악부장	
4	9.23	김명술 목사	1	이현남 집사	종이접기	종이접기 강사	4
			2	김욱환 집사	치매예방과 손끝운동	본원 교학처장	
5	9.30	신정호 목사	1	신상인 차장	귀와 청각	금강보청기 차장	5
			2	김성숙 집사	유산소 운동(에어로빅)	본원 반주자	
6	10.7	가 을 자 연 학 습					6
7	10.14	신현철 목사	1	김천식 집사	여행 이야기	예수병원홍보팀장	7
			2	김일선 집사	민요와 춤	본원 음악부장	
8	10.21	김보한 목사	1	정영택 집사	눈병 예방과 백내장 치료	푸른안과 원장	1
			2	최태일 장로	얼쑤 우리가락	원광대 교수	
9	10.28	김명술 목사	1	정애현 집사	찬양과 행복	기독교방송 PD	2
			2	최상기 교장	노래교실(아코디온 연주)	아코디온 회장	
10	11.4	산 업 시 찰					3
11	11.11	김용언 목사	1	인병현 집사	환경과 건강	미래 내과 원장	4
			2	박진근 집사	건강을 위한 물리 치료법	의료기 상사	
12	11.18	신현철 목사	1	이종우 집사	건강한 삶	전주대 교수	5
			2	박애숙 집사	국악 한마당	국악원 원장	
13	11.25	김동건 목사	1	김동건 목사	종강예배와 강의	본교회 담임목사	6
			2	이민행 장로	학습발표 및 종강 안내	본원 부원장	

(2) 우애 서비스

노인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대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노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를 서로 대화하며 나눔으로서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으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며 고독감, 외로움을 해소한다. 우애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는, 말동무 서비스이다. 말동무 서비스는 유급봉사원, 결연자녀가 매주 1회 이상 노인 댁을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지나온 이야기, 일상생활 등을 부담 없이 이야기 하는 것이다.

둘째는, 안부전화 서비스이다. 노인 댁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결연자녀는 사회복지사가 집에 전화를 하여 안부를 확인한다.

셋째는, 찾아가는 생신잔치 서비스이다. 생일날 아침 사무실 전 직원이 노인의 댁을 찾아가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 드리며 건강을 기원한다.

넷째는, 개운오찬 서비스이다. 사랑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개운하게 목욕 서비스를 즐기신 후에 지역 사회 식당의 후원으로 점심 외식을 한다.

다섯째는, 가정회복 서비스이다. 가정이 해체되어 자녀들과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자녀들을 상담하고 지지하여 가족 사랑을 회복한다.

여섯째는, 병문안, 조문 서비스이다. 입원, 와병중인 노인들을 위로하며 사망시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3) 가사지원 서비스

균형 있는 식단을 통하여 영양실조를 예방하고 가사노동으로 인한 체력저하를 방지하며 주거환경 개선으로 노인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 한다.

가사 지원서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집안 살림 지원 서비스이다. 거동이 불편하여 설거지, 청소, 세탁 등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찾아가 집안일을 돕는 서비스이다.

둘째는, 영양 간식 지원 서비스이다.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기 쉬운 노인들에게 매일 야쿠르트와 신선한 빵을 제공해 드림으로 건강 생활을 유지하게 한다.

셋째는, 밑반찬 서비스이다. 김치, 장조림, 마른 반찬 등 바로 꺼내어 드실 수

있는 밑반찬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입맛을 돋우며 균형 있는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넷째는, 집수리 서비스이다. 보일러, 화장실, 수도꼭지, 파이프 교체, 전기, 못 박기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기본적인 삶의 공간을 마련하여 드리는 서비스이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들의 깨끗한 개인위생 관리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드림으로 혼자 생활하시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드리며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에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이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방문간호 서비스이다. 전주시 보건소, 가정 방문 간호팀과 엠마오 사랑병원의 방문 간호팀의 협조로 혈압, 몸무게, 혈당 등을 체크하며 집에서 독감 등의 예방주사를 맞게 하는 서비스이다.

둘째는, 이, 미용 서비스이다.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머리 커트와 머리감기기를 주 1회 봉사하는 서비스이다.

셋째는 차량 지원 서비스이다. 노인의 외출 및 병원동행, 장거리 출타 시 차량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넷째는, 목욕 서비스이다. 결연자녀와 함께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돕는 서비스이다.

다섯째는, 돋보기 맞춤 서비스이다. 아이피아 안경점의 후원으로 시력 및 눈 검사를 통하여 안질환을 예방하고 돋보기를 제작하거나 교체해 드리는 서비스이다.

여섯째는, 민원업무 지원 서비스이다. 민원서류 발급과 수급권자 지정 등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도와 드리는 서비스이다.

(5)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의 더 많은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한다. 상담서비스는 먼저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 지역 사회의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서비스이다.

(6) 후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노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후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후원의 물품이다. 풍년제과, 푸드뱅크, 제과업체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후원받아 전달하는 서비스이다.

둘째는, 불우한 노인들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지정, 비지정, 후원금을 기탁받아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권자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이다.

셋째는, 후원자와 결연을 주선하는 서비스이다. 금품, 물품, 후원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노인들과 결연을 맺어 드리는 서비스이다.

(7) 교육 홍보

직원들의 재교육과 다양한 연수를 통해서 노인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자세와 기술을 체득하며 헌신된 마음과 전문적인 서비스로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서비스이다.

교육홍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식지 발간 사업이다. 가정봉사원 파견 센터와 중부 복지 재단을 소개하고 사업내용을 소개하며 사회복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는, 사회복지 실습지도 사업이다.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 실천 마인드 제고와 현장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셋째는, 교육연수 사업이다. 자원의 능력개발과 선진복지를 체험하는 것이다.

넷째는, 욕구 만족도 조사 사업이다. 욕구를 파악하여 노인들에게 더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8) 행사

홀로계신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대화하고 웃으며 사회성을 증진하고 결연자녀들과 하나 되어 잊혀 가는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여 도움만 받는 노인이 아닌 서로 돕고 사랑하는 노인 상을 정립한다.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족 수련회이다. 노인과 결연자녀들이 부모와 자녀처럼 밤을 새우며 1박 2일 동안 함께 먹고 자며 찬양과 말씀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하나 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는, 명절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설날과 추석명절에 노인들께서 원하시는 명절 선물을 드림으로 외로움과 허전함이 심한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한다.

셋째는, 야외소풍 행사이다. 노인들이 결연 자녀들과 함께 봄, 가을 여행을 떠나 자연을 즐긴다.

다섯째는, 성탄 축하잔치이다. 전체의 노인들과 결연자녀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의 즐거움을 나누며 다양한 볼거리들과 푸짐한 선물로 서로를 격려하며 한해를 정리한다.

여섯째는, 결연자녀의 월례회의 이다. 노인들에게 더 나은 섬김의 방법들을 알기 위한 교육과 상호 의견교환으로 봉사의 질을 높인다.

제 6 장 노인의 사회학적 이해

제 1절 노인의 사회적 특성

코길과 홈즈의 현대화 이론에 의하면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전통사회 구조에서 노인의 지위는 절대적이지만 사회가 현대화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더욱 약화된다고 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옛 지식을 소유한 노년층의 경험과 지식은 쓸모없게 되어 노인계층을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사회의 도시화 산업화로 노년층을 직업과 지역사회로부터 역할을 박탈하고, 친족으로부터 분리시켜 고독한 존재로 소외시킨다.[156]

노년기에는 퇴직이나 배우자의 상실과 같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적 노화의 진행에 따른 역할상실 문제는 퇴직으로 인한 직업적,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가족 내에서의 역할상실을 포함한다. 역할상실은 책임범위의 축소와 활동 제약을 초래하는데 그 결과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역할기대가 불명확한 역할모호성 문제에 봉착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은 노인들에게 자아확인 및 자아지지의 기반을 상실하게 하여 자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사기를 저하시키고 삶의 의욕을 잃게 한다.[157]

현대사회의 기술 집약적인 특징은 노인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의 직업역할 수행에서 경쟁이 발생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된 노인은 경쟁에서 뒤지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현장에서의 배제와 탈락이 일반화되고 제도화됨으로서 노인들은 직업적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직업 역할의 상실은 사회적으로부터의 격리를 초래하고 상실감,

---

156 최순남, *현대노인복론* (서울: 법문사, 2002), 296.

157 이해성, *한국의 노인문제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부산: 부산대학교, 1997) 93.

좌절감, 고독감, 소외감 등 정서적 충격도 함께 겪게 된다. 또한 무력감이나 의존성을 심화시켜 노인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비하시키게 된다.[158] 그러므로 노인의 시기는 자신의 역할이 시간이 되어 오늘날 산업사회의 많은 노인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오늘날 우리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여가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은 이러한 여가활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노인들은 생계유지자로서의 역할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권위를 누리던 터전이었던 가족, 친족, 공동체 역시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어 간다. 오히려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노인들의 지위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격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노인들의 역할 상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 역할이 경제적 소득보장 이상 의미를 갖고 있어야 하며, 노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을 심어 주어야 한다. 노인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라 퇴직하는 자발적 퇴직제도와 같은 혁신적이고 융통성 있는 퇴직정책과 일자리의 확보와 재고용 제도의 도입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159]

또한 노인의 경제적 욕구와 여가시간의 활용 욕구가 있는데, 199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49.9%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함으로서 많은 노인이 노후의 경제적인 불안을 큰 걱정거리고 느끼고 있다. 빈곤의 원인은 신체적 및 전문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젊은 세대와 비교해서 노동생산력 저하로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고[160] 현재 노인의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얻은 소득의 대부분을 자식양육 및 교육비로 지출하였고, 사회보장제도의 실시가 미흡 때문으로 볼 수 있다.[161]

---

[158] 나미영, *한국교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12.

[159]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 이해* (서울: 학문사, 1999), 380.

[160] 박상하 외 9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서울: 양서원, 2004), 202.

선진국인 미국노인의 경우에도 10명중 9명이 매월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연금은 이전소득의 6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금수입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65세 이상 노인들의 재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62]

Kaplan[163]의 노인의 여가생활 욕구는

첫째,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동을 제공하는 것과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둘째, 여가 선용과 친구들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싶은 욕구

셋째, 자기표현과 성취감을 가지려는 욕구 및 정상적인 동반자 관계를 가지려는 욕구

넷째, 건강의 욕구 및 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안정을 받아 보려는 욕구

다섯째, 가족과 원만한 관계 및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려는 욕구 등으로 표현하였다.

노인의 사회적 욕구는 양적확대, 질적 변화, 그리고 다양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복지의 중심이 경제적 급여인 구빈 대책으로부터 점차 비경제적 급여인 노인복지서비스 대책으로 전화되고 있다. 이러한 욕구의 변환은 노인복지의 사회적 욕구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제 2 절 노인의 사회적 문제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라면 보통 4중고로 표현된다. 즉 빈곤, 질병, 역할상실 그리고 고독이다.[164] 노인이 되면 이 네 가지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

161 나미영, 8-9.

162 최순남, 288-289.

163 M. Kaplan, *The Use of leisure, i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407.

164 임창복, *교회노인교육의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노인학교 교육과정 각성을 위한 세미나* 26회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2000) 22-25.

더 큰 문제다. 즉 노인 되면 으레 그러려니 여기고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노인 문제는 보통 복합 위기로 이해된다. 복합 위기란 몇 가지 위기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며, 한 문제의 해결책이 노인생활 전체의 개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제적 어려움 (빈곤)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재정의 과다지출과 직장에서의 은퇴로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지위를 저하시킨다. 1990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64.5%의 노인이 경제생활에 궁핍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가구의 주 수입원으로는 자녀의 원조가 63.7%로서 노인의 대다수는 경제생활을 자녀로부터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5]

비슷한 시기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경제상태가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23.5%, 약간 어렵다고 응답한 사람이 31.4%, 그저 그렇다가 23.6%로 나타나 노인들 중 54.9%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조사되었다.[166]

이와 같은 조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은 65세, 노인 인구 중 약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2. 질병문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기능약화가 현재 사회의 가족 상태로 노인문제를 표면화시키는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 등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은퇴로 인한 경제적 궁핍, 충분하지 못한 영양섭취,

165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317.

166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00-101.

표 5 노인의 질병

계 통	증 상
신 경 계	뇌혈관 장애, 파킨스병, 변형성 경추증, 노년치매, 당뇨성 질환 전이성 뇌종양
순환기계	고혈압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신요로계	신경화증, 당뇨병성 신증, 만성신염, 신암, 신경인성 방광, 요도감염증
소 화 계	소화기계 암, 간암, 췌장암, 담석증, 식도 열공증, 만성위염, 습관성 변비
혈 액 계	속발성 빈혈, 다발성 골수증, 악성빈혈, 악성 임파선증
내분비계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증, 남성 신부전, 여성 갱년기, 당뇨병 중풍, 비만
골관절계	공조발증, 변형성 척추증, 병형성 관절증, 만성관절, 류마티증 골수종, 골수암
정 신 계	기질성 정신장애(노년치매, 노동맥 경화성 치매, 초노기치매) 기능성 정신장애(조병, 우울증, 분열병, 진화신경증), 기타(알콜중독, 성격이상)

점진적인 생리적 쇠약, 여러 질병의 복합 증세가 노인의 건강을 약화시킨다. 문제는 노인들이 건강 악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수입 감소에 의한 빈곤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데 있다. 노인병의 특징은 만성적이며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노인이 되면서 생기는 이러한 질병과 제한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노후 생활의 심리적 안정과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역할상실의 문제

노인이 되면 누구나 역할 상실을 경험한다. 역할이란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사회에 참여하는 수단으로서 개인은 이 역할을 통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남자에게 있어서 역할 상실은 주로 퇴직과 함께 나타난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가사권을 며느리에게 넘기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빈 집에 남게 될 때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노년기의 상실은 노인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

노년기에는 직업을 대체하는 사회적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은 본인도 즐거워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어야 한다. 그 역할을 지혜롭게

수행하는 것이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4. 고독감의 문제

산업사회는 노동력과 생산성,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노인은 산업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한다. 현대의 산업화 도시화의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이 젊은이들의 편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인들을 위한 배려는 거의 없는 도시는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회이다.[167]

이러한 사회에서 노인들은 고독하며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만일 노인이 한평생을 일에 몰두하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은퇴를 한다면 자신이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거절당했다고 느끼게 된다. 이런 이유로 고독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존재하며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소득과 건강 그리고 역할 상실이 저하되면서 주위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할 때 노인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

젊은 날의 고독은 낭만적일 수 있으나 노년기의 고독은 처량하고 비극적이다. 주의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힘들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노인은 사회와 단절되고 결국 사회적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고령이 될 수록 고독은 심화된다. 서로 깊은 마음을 주고받는 배우자나 친구가 하나 둘 주위에서 사라짐으로 고령노인의 사회적 고독과 심리적 고독은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가장 고독한 시기에 친근한 말로 위로와 격려를 해 줄 벗이 없다는 것이 고령노인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오히려 노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절로 특정 지을 수 있는 고독과 소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 삶을 창출해 가는 자유를 뜻한다.

복음은 소외된 노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도울 수 있다. 교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용납하고 성경적인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

167 이창희,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의 이론과 실재* (서울: 홍익사, 1993), 21.

제 7 장 노인의 심리학적 이해

제 1절 노인의 심리적 특성

노년기에는 누구나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영향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나타나고 적응력이 저하되면서 쉽게 그리고 자주 욕구불만이 가중되어 노인 특유의 성격특성이 나타난다. 융은 노년기의 특성은 신체적인 노화와 사회관계의 축소에서 오는 사회 심리적 변화에 따라 정신생활이 외향성의 경향으로부터 내향성으로 변화되어 간다고 했다.[168]

그리고 교육의 대중화로 인해 자녀세대 교육수준이 부모세대의 교육수준보다 높아지고 산업화로 인해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세대 간의 사회적, 심리적 거리감이 늘어나 세대 간의 갈등과 고립을 야기 시키고 있다. 결국 사회와 노인간, 젊은이와 노인세대간,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간의 고립과 소외라는 사회·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세대 간의 고립과 갈등은 구체적으로는 부모와의 별거문제 등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표출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문화적 배경에서 경로 효친의 덕목이 유별나게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노인들의 심리적 충격과 상대적으로 박탈감은 더욱 크다.

세대 간의 고립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이해와 공식집단 내의 사회활동은 물론 정서적 유대와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친척, 이웃관계의 교류확대, 동년배집단,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고령자들과 교류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 스스로가 주역으로서 집단 연대감을 형성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력화, 압력을 집단화시키는 결집 작업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69] 압력 집단으로서의 발전은 노인층을 사회의 소외계층으로서가

---

168 최순남. 64.

169 Ibid., 144.

아니라 당당한 주류로서 평가받도록 새롭게 인식시켜 고령자를 배려하는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을 강화시키고 세대 간의 통합적 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70]

제 2 절 노인의 욕구

이전에는 노년기를 성인 후기라 불렀는데 그것은 마치 노인을 곧 못쓰게 될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으로 노년기를 표현하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 신체적으로는 쇠퇴하여도 내적으로는 늙지 않았다고 느낀다.[171]

노인에게는 노인의 때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존재 의미가 있다. 교회노인복지목회의 책임자들은 노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노인들의 욕구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1. 교육적 욕구

성인 초기와 중기에는 사회적 성취를 위한 교육욕구가 높게 나타나지만, 노년기에는 내면적 성취를 위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172]

모스테인과 스마트(B. R Morstain and J. C. Smart)는 노인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를 다음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173]

첫째, 새로운 동성 혹은 이성의 친구를 만나기 위한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

---

[170] 진덕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67.

[171] 한성열,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 (서울: 학지사, 2000), 273.

[172] 최운실, *고령화 시대의 후기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서울: 홍성사, 1993), 183.

[173] B. R Morstain and J. C. Smart, *Reasons for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course, A multiplication analysis of group differences, Adult Education 24* (February 1974), 87-88. B. R Morstain and R. S. Cafarrella, *Learning in adulthoo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1991), 85.

둘째, 권위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한 외적인 관계(external expectations)

셋째,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사회복지(social welfare)

넷째,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성추구(professional advancement)

다섯째, 가정 혹은 일에서의 싫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극(escape stimulation)

여섯째, 자신의 이익과 내적 만족을 위한 지적인 흥미(cognitive interest)

로스테인과 스마트는 노인들의 영적인 욕구와 노년에 이르러 알고 싶어 하는 노년의 가치와 지나온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카프와 피터슨과 롤프스(A Carp, R. Peterson and P. Roelfs)는 성인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일곱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174]

첫째,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

둘째, 새로운 직업 혹은 학위 등 개인적인 욕구

셋째, 지역사회의 문제에 참여하려는 욕구

넷째, 새로운 친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는 욕구

다섯째, 내세를 향한 종교적인 욕구

여섯째, 어려운 현실에 대한 도피의 욕구

일곱째, 배워야 한다는 의무감에 욕구

맥클러스키(H. Y. Mc Clusky)는 노인문제에 관한 백악관 회의에 제출한 배경 보고서에서 노인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했다.[175]

1) 대처 욕구(coping needs): 환경 적응 욕구

---

[174] A Carp, R. Peterson and P. Roelfs. *Adult learming interests and experiences, Planning non-traditional programs, An analysis of the issues for postsecondary education*, ed K. P. Cross, J. R. Valley and Associat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88), 91.

[175] Howard Y. Mc Clusky, *Education, Background prepared for the 1971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ashington D.C: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1971)

맥클러스키는[176] 생존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 욕구, 즉 대처 욕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65세 이상 된 노인들은 기본적 대처 능력을 결여하는 경우가 많다. 65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젊은이보다 높고, 65세 이하의 사람들에 비해 수학연수(修學年數)도 적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낡은 지식과 기술로는 변화하는 새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을 받으려고 한다. 문맹퇴치, 읽기와 쓰기,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칙, 법률, 경제, 건강교육 등이 이에 속한다.

2) 표현 욕구(expressive needs)

활동이나 참여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노인들은 자발적인 신체운동, 사회적 활동, 그리고 새로운 경험 그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직업과 개인적 책임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취미 등을 충분히 살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나, 이제 노년에 자유로운 시간을 갖게 되어 학위나 취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배우는 재미' 혹은 '관심'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적 욕구에는 다른 동료들과의 친교관계 형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공헌 욕구(contributive needs)

노인들은 자신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있다. 가족이나 새로운 친구를 잃거나, 정년퇴직이나 자발적 퇴직, 자녀의 성장, 시력의 감퇴, 에너지의 감퇴로 인해 생산적 역할을 상실하는 것이 가중되면서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거나 사회적 고립감을 맛보게 된다. 노인들에게도 남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노인들은 이러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자아개념을 충족시키고 스스로 만족을 구할 수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사회복지기관 혹은 교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서 노인들은 자존심을 유지하고 개인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

---

[176] 허정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서울: 협신사, 2000), 179-180.

4) 영향의 욕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남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받고만 있기보다는 생활의 각 방면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그런데 노인이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물질적 생산과 소비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젊은이들만 대접을 받을 뿐 노인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기 쉽다. 그러나 보다 강력하지 않은 것과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 노인들은 지역사회의 친목 혹은 봉사단체, 노인단체 등에 가입하여 많은 영향을 사회에 주려고 한다.

5) 초월의 욕구(transcendence needs)

노년기에 접어들어 눈앞에 다가온 죽음을 실감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닫고 파악하려는 욕구이다. 즉 노년기에 현저히 나타나는 신체적 퇴락을 경험하면서 신체적 젊음 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찾게 된다. 노인들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성공이나 실패를 평가한 다음 무엇이 보다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에 노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확보된다.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같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노인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며 누구보다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인다. 노인들이 거듭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에게 심겨진 복음은 점점 자라나 스스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된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그 변화는 확실하다.

노인들은 한두 번의 접촉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랜 시간 끊임없이 그들과 다정하고 친절한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심리적 욕구

카플란(M. Kaplan)은 노령기를 살고 있는 인간의 욕구를 다음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177]

첫째,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해보려는 욕구

둘째, 여가를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 하는 욕구

셋째, 자신의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넷째, 특정한 업적이나 성과를 올려보고 싶어 하는 욕구

다섯째, 오래도록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

여섯째, 심리적으로 자극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욕구

일곱째, 가족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도록 하는 욕구

여덟째, 종교적 신앙을 포함한 정신적, 정서적 만족을 얻어 보려는 욕구

카플란은 정신적, 정서적 만족을 맨 마지막에 언급했으나 실제는 일반인들이 정신적, 정서적 만족은 육신적이고 사회적인 충족이 이루어졌다고 달성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만 달성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반인들은 미로를 헤매는 방랑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노인복지 목회를 이런 노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할 사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마음은 목자 없는 양 같이 유리하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이요,[178]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까지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이다.[179] 교회는 노인복지 목회의 목적을 잃은 양을 찾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

3. 영적인 욕구

케니그(H. G. Koenig)는,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모든 노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욕구들이 있다고 했다.[180]

---

[177] M. Kaplan. *The uses of leisure,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ed. Tibbit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4.

[178] 마태복음 9:36.

[179] 누가복음 15:4.

[180] Harold G. Koenig, MD, *Aging and God, Spiritual Pathway to mental health in midline and later yerars* (New York: The Haworth astrol press, 1994), 284-293.

첫째, 의미와 목적, 그리고 소망에 대한 욕구가 있다.

둘째, 환경을 초월하려는 욕구가 있다.

셋째, 상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후원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노인들은 독립심을 잃거나, 경제력을 잃거나, 배우자를 잃거나,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잃게 된다. 어떠한 것을 상실한 것으로 인해 노인들은 거부감, 내적인 공허감, 지루함, 고독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노인들은 절망과 싸우고 생존의 의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유효하다는 것, 이해와 위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과 소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1) 연속성에의 욕구가 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자기 삶의 내적인 구조와 외적인 구조를 유지하려고 시도한다. 노인들은 자아 존중을 유지하고, 자아 통합을 유지하며, 사회적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인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심리적 연속성,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서 외적인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

이 연속성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교육이나 신체적, 심리적 결핍을 보충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이 가능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 날까지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더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건강하고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너희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181]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182] 그러므로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183]라고 한 시편 기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에 찬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

181 "그리하겠고"라는 말은 "너희를 안고 다니겠고"라는 의미이다. 표준새번역성경은 "너희가 늙을 땍가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호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고 번역했다.

182 이사야 64:4.

183 시편 71:9.

하나님과 성경이 노인들로 하여금 내적인 것과 외적인 연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과 성경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신앙적 행동에 대해 지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기도와 성경 읽기, 혹은 다른 종교적 행동에 의존할 수 있다. 교회들은 노인들의 이러한 행동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가치 절하하기 보다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3) 교회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기도, 성경 읽기, 예배 등과 같은 활동들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들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노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가치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육체적으로 늙고 아픈 곳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지는 노인들은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느끼기 쉬우므로 자아 존중 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노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노인들의 인격의 존엄성이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한다.[184]

5) 무조건적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은 자신이 성취한 것이나 생산한 것과 상관없이 용납되고 가치 있고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무조건적 사랑이 자아 존중 감의 근거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노인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의 사랑은 타산적이 되기 쉽고 변덕이 많다.

6) 노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다.

---

184 로마서 8:16-17.

노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편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위로와 방패가 되신다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와 일대일 관계를 맺고 교인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7)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필요가 있다.

하나님과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노인들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 이러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자체가 노인들의 삶을 활력 있게 하고 재충전시켜주는 것이 된다. 청각에 문제가 없다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좋다. 병원에 있을 때조차도 간호사들에게 친절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노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된다.

8) 노인들은 감사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감사하는 삶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그 좋은 것들에 대하여 노인들은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 할 필요가 있다.

9) 노인들은 용서할 필요와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과거의 사람들을 용서할 필요가 있다. 적대 내지 유감의 관계에 있는 이들이 가족 구성원이든지 혹은 친구이든, 혹 그들이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간에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의 적의와 유감으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롭게 노후를 살기위해서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관계의 대상들도, 그들이 가족이든지 혹은 친구든지 간에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 8 장 현장 분석

- 상파울루 소재 한인 교회를 출석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브라질 이민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조국의 발전과 더불어 브라질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의 개선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상파울루 총영사관의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총인구는 27,633명이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809명으로 전체 인구의 10.2%이다. 2009년 2월 연방경찰의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 전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거주하는 총인구는 24,950명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년 전의 인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 60세 이상의 인구는 15%를 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6 브라질 거주 한인 연령별 인구통계

대한민국 상파울루 총영사관 1997. 3.

연령(세)	인구수(명)	비율(%)
1−9	1,961	7.1
10−19	4,163	15.1
20−29	5,583	20.2
30−39	5,875	21.2
40−49	4,111	14.9
50−59	3,131	11.3
60−69	2,145	7.8
70이상	664	2.4
계	27,633	100.0

이와 같은 수치는 세계 제일의 장수국인 일본의 9.9%, 미국의 11.7%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185]

185 "인간의 수명" *부산일보 사설*, 1986. 7. 3.

이렇게 브라질 이민자들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민족으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을 이민 2세들에게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대가족제도는 붕괴되어 핵가족화 되는 분화의 현상과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의 전통문화를 유지하려는 노령화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사상과 상극갈등을 빚고 있어 브라질 상파울루의 노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또한 대부분 이민자들이 브라질 시민권을 받기를 거부하고 영주권의 신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의 복지 혜택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브라질 이민 노인복지는 경제적 빈곤문제와 건강의료문제는 노인들의 생존권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서 고독과 무료함은 실로 노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쉽게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고독과 소외, 무료함 속에 삶의 보람을 잃어버리기 쉬운 저들에게 안락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것은 더욱 소중하다.

이런 목적 하에 현대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위(avangard)로서[186] 교회가 노인목회의 일환으로 노인학교 운영을 통하여 노인들이 교양과 상식, 부업과 취미, 여가 선용과 건강관리 방법 등을 익혀서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노인자신들에게는 보람 있는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시기적절할 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한 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한다고 하겠다.

제 1 절 조사목적 및 중요성

인간수명의 연장, 인구의 노령화, 급격한 산업도시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과 봉건가족제도의 붕괴로 인한 핵가족화의 경향은 각종의 노인문제를 심각할 정도로 대두시키고 있음이 이미 밝혀진 바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노인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회 인구구조의 노인인구 비례를 훨씬 능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의 노인목회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미약하다.

---

[186] Harvey Cox, *세속의 도시*, 김관석 외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166.

따라서 노인도 목회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고귀한 인간 가족의 일원이요, 오늘날까지의 역사 문화 창조의 유산을 물려준 은인이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이민 1세대의 노인들은 브라질에서 한국인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인 기반을 닦았다. 그 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지혜로 오늘 한국인이 브라질에서 한국인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안락한 노후를 보내도록 미약하지만 교회가 배려를 하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교회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중에서도 교회에서의 노인학교 운영은 노인목회를 활성화하는 지대한 몫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사연구는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서 노인목회의 현실과 전망, 즉 가능성을 측정하고 실행하여 노인학교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

1. 조사의 목적

첫째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5개 교회를 선정하여 교회에 속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

둘째로, 브라질 상파울루의 노인들이 노인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하려고 한다.

셋째로, 이와 같은 조사 분석을 통해서 브라질 상파울루 새소망 교회의 노인목회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노인학교 운영의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하려고 한다.

2. 가설

첫째는, 새소망 교회는 이와 같은 조사 분석을 통해서 노인목회의 필요성을 각성하게 될 것이고, 실재 노인학교를 운영을 실행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새소망 교회의 노인학교의 운영은 브라질 한인 교계를 자극하여 노인복지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노인복지를 준비하고 실행할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노력은 브라질 이민 한국인들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교회의 영향력이 확대 될 것이다.

3. 조사내용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신급, 교회직분, 전·현 직업, 교회출석연한, 교회의 교인 수, 노인 교인 수에 관한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 조사목적의 기초를 삼으려 했다.

4. 조사방법

선정된 브라질 한인교회에 직접 방문을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 2 절 조사결과

표 7 귀하의 성별은?

응답 / 성별	응답자	비 율
남	31	30
여	65	64
무응답	6	6
계	102	100

표 7에 따르면 102명의 노인 중에 여성 노인이 65명으로 64%에 해당하는 수치의 결과가 조사되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의 남녀 성구성비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의 비율이 30%가 조사된 것은 남성 노인들도 노인학교 내지는 교회의 노인프로그램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1. 귀하의 연령은?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자의 79%가 70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이민 1세의 노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표 8 귀하의 연령은?

응답 / 나이	응답자	비 율
60세-65세	2	2
66세-70세	17	16
71세-75세	23	23
76세-80세	33	32
81세-85세	18	18
86세-90세	6	6
91세-95세	1	1
96세-100세	0	0
무 응 답	2	2
계	102	100

브라질 정부에서도 복지혜택을 볼 수 없는 노인들에게 교회가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절실한 책임을 느끼게 하는 조사의 결과이다. 특히 70세 이상의 노령의 이민 1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겪는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로 인한 외로움과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을 때 건강한 이민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고, 건강한 이민 사회를 형성할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조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2. 귀하의 종교는?

표 9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의 87%가 기독교인이었다. 조사 응답 결과에 의아한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천주교인 9%, 불교인 1%, 유교인 1%로 응답된 것은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회심하지 않고 다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이다. 이러한 조사 응답의 결과로 볼 때에 한인 이민교회에 출석하는 노인들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외로움 때문에 출석하는 노인들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응답이라 하겠다.

표 9 귀하의 종교는?

종교 \ 응답	응답자	비 율
기 독 교	89	87
천 주 교	9	9
불 교	1	1
유 교	1	1
무 응 답	2	2
계	102	100

물론 대다수의 응답자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하므로 향후에 본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할 때에 기독교에 바탕을 둔 노인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3. 기독교인이라면 귀하의 신급은?

표 10 기독교인이라면 귀하의 신급은?

신급 \ 응답	응답자	비 율
세 례	87	85
학 습	3	3
구 도(원 입)	3	3
무 응 답	9	9
계	102	100

표 10에 의하면 위 표의 조사에서 타 종교에 응답한 사람들이 무응답으로 응답을 했으며 천주교인의 경우에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것을 세례 받은 것을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91%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4. 기독교인이라면 귀하의 교회 직분은?

표 11 기독교인이라면 귀하의 교회 직분은?

직분 응답	응답자	비 율
목 사	2	2
장 로	3	3
안 수 집 사	15	15
권 사	52	51
서 리 집 사	11	11
무 응 답	19	18
계	102	100

표 11에서 특이한 응답은 목사와 장로가 응답을 했는데 이 분들은 은퇴한 목사와 장로들이다. 브라질 상파울루에 한인 교회는 42개이다. 이들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들도 평신도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은퇴 교역자, 선교사에 대한 교회의 특별한 배려와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5. 귀하께서 은퇴하시기전의 직업이나 현재의 직업은?

표 12을 보면 상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가 39%로 브라질 상파울루 거주 한인들이 상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은퇴했거나 종사자는 0%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초장기의 한국인 브라질 이민은 농업 이민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사의 응답자 중에 농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농업 이민자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모두 대도시로 옮겨 와서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표 12 귀하께서 은퇴하시기전의 직업이나 현재의 직업은?

직업 \ 응답	응답자	비 율
공 무 원	4	4
회 사 원	1	1
상 업	40	39
의 사	1	1
농 업	0	0
전업 주부	27	26
기 술 자	4	4
기 타	16	16
무 응 답	9	9
계	102	100

6. 귀하의 교회 출석연한은?

표 13 귀하의 교회 출석 연한은?

연한 \ 응답	응답자	비 율
1년 이하	2	2
1년-5년	1	1
6년-10년	3	3
11년-15년	2	2
16년-20년	6	6

21년-25년	6	6
26년-30년	11	11
31년 이상	67	66
무응답	4	3
계	102	100

표 13에 의하면 31년 이상 교회 생활한 응답자가 66%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을 분석하면 대부분 조사 응답자가 이민 30년 이상 된 것을 감안하면 이들은 브라질 이민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생활을 한 것을 분석할 수 있다.

7.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표 14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부 / 응답	응답자	비 율
예	62	61
아니오	25	25
무응답	15	14
계	102	100

표 14에 의하면 61%의 응답자가 정기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 표에서 응답한 것과 같이 1년에 1회 정도의 경로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8.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표 15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류 \ 응답	응답자	비 율
노 인 학 교	29	28
노인자치회(노인회)	18	18
경 로 잔 치	25	25
양 로 원	2	2
기 타	8	8
무 응 답	20	19
계	102	100

표 15에서 응답자들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교회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며 대부분이 생색 내기위한 1회적인 행사였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예를 들면 1주일에 1-2회 정도의 노인학교를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인을 향한 관심과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발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9.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인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표 16에 의하면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건강의 문제였다. 특별히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자유롭게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민 1세의 노령자의 의료혜택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노령자들의 의료혜택의 문제를 교회에서 감당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노인 공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할 때,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은 해결

방안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표 1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인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종류 \ 응답	응답자	비 율
경제적인 어려움	20	20
건 강 문 제	62	61
재 취 업	2	2
재 혼 문 제	0	0
여가선용의 문제	5	5
소 외 와 고 독	4	4
무 응 답	9	8
계	102	100

10. 노인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부터 번호를 써주세요.

표 17 노인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부터 번호를 써주세요.

종류 \ 응답	1순위 응답자	비 율
생 계 보 조	20	20
의 료 혜 택	52	51
노 인 학 교 운 영	10	10

노 인 회 조 직	4	4
양 로 원 운 영	4	4
전 화 상 담	2	2
여가선용 프로그램	2	2
무 응 답	8	7
계	102	100

표 17에 의하면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조사 응답자의 51%가 가장 먼저 의료 혜택을 받고 싶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응답은 현재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노인학교를 운영 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의료 분야이다. 의료 분야의 건강 특강이나 방문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본다. 그다음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계보조이다. 이와 같은 응답은 상당수의 노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할 때에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을 알선하거나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계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 귀하는 지금 노인으로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표 18 귀하는 지금 노인으로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종류 \ 응답	응답자	비 율
몸이 아프다	45	44
용돈이 부족하다	18	18
할 일이 없다	11	11
너무 쓸쓸하고 고독하다	3	3

자녀와 관계가 불편하다	1	1
기 타	7	7
무 응 답	17	16
계	102	100

표 18에 의하면 현재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연히 알 수 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건강의 문제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와 고독과 소외의 문제이다.

이제 새소망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을 시행하게 되면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계발과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귀하께서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표 19 귀하께서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종류 \ 응답	응답자	비 율
노인정에 나간다	6	6
노인학교에 나간다	21	21
낮잠을 주무신다	2	2
이웃집에 놀러간다	3	3
신문이나 책을 읽는다	47	45
아이들을 돌본다	4	4
집을 지킨다	7	7
기 타	5	5

무 응 답	7	7
계	102	100

표 19에 의하면 노인들이 여가 시간에 신문이 책을 읽는다는 응답이 45%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인들이 소 일거리가 없다는 것도 되지만 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13. 귀하께서는 노인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표 20 귀하께서는 노인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류 응답	응답자	비 율
예	84	82
아니오	10	10
무응답	8	8
계	102	100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조사 응답자 노인들은 82%가 노인의 계속 교육이 필요하다가 응답하였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교육에 대한 욕구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노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노인학교 개교를 추진하여 한다.

14. 귀하께서는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겠습니까?

표 21에 의하면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개설하고 운영을 할 경우에 90% 이상의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것은 노인학교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치의 응답이다.

표 21 귀하께서는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종류 응답	응답자	비 율
예	92	90
아니오	6	6
무응답	4	4
계	102	100

15. 교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교육을 받기 원하십니까?

표 22 교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교육을 받기 원하십니까?

종류 응답	응답자	비 율
교 양 강 좌	13	13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24	24
건강을 위한 활동	52	51
용돈마련을 위한 재취업 교육	5	5
무 응 답	8	7
계	102	100

표 22에서도 역시 노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이었다. 그러므로 노인학교의 중점 강좌는 건강 강좌와 및 건강을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교양과 취미활동을 위한 강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야 한다.

16. 귀하께서 설문 자의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한다면 귀하는 참석할 수

있습니까?

표 23 귀하께서 설문자의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한다면 귀하는 참석할 수 있습니까?

종류 \ 응답	응답자	비 율
예	91	89
아니오	5	5
무응답	6	6
계	102	100

표 23에서 본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할 때에 참석하겠다고 응답한 수가 90%에 가깝다. 이와 같은 호응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계발과 시설, 우수한 강의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7. 노인학교에서의 강의 시간은 얼마만큼이 좋겠습니까?

표 24 노인학교에서 강의 시간은 얼마만큼이 좋겠습니까?

종류 \ 응답	응답자	비 율
30분	14	14
40분	12	12
50분	12	12
1시간	35	35
1시간 30분	16	16
2시간-3시간	7	7

3시간 이상	2	2
무 응 답	4	4
계	102	100

18. 노인학교에 나오신다면 어느 시간대가 좋겠습니까?

표 25 노인학교에 나오신다면 어느 시간대가 좋겠습니까?

종류 \ 응답	응답자	비 율
오전 10시-12	72	72
오후 2시-4시	17	17
오전 10시-오후 2시	13	13
무 응 답	0	0
계	102	100

19. 노인학교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인 경우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표 26 노인학교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인 경우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종류 \ 응답	응답자	비 율
있다	43	42
없다	45	44

무 응 답	14	14
계	102	100

표 26에서 응답자들은 강의가 오전에 시작하여 오후까지 이어질 때에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42%, 준비 할 수 없는 분들이 약간 많아서 44%이었다. 만약에 노인학교를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정성껏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노인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노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노인학교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 노인학교에 한 번 나오시면 얼마나 머무를 수 있습니까?

표 27 노인학교에 한 번 나오시면 얼마나 머무를 수 있습니까?

종류 \ 응답	응답자	비 율
1시간	21	21
2시간	37	36
3시간	28	27
4시간	7	7
하루 종일	4	4
무 응 답	5	5
계	102	100

21. 귀하께서는 노인학교에는 1주일에 몇 번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표 28 귀하께서는 노인학교에는 1주일에 몇 번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류 ╲ 응답	응답자	비 율
1일	51	50
2일	28	27
3일	15	15
3일 이상	4	4
무 응 답	4	4
계	102	100

표 25와 표 28에서 노인학교의 운영 1주일에 한번 모이고 시간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하는 것이 전체 응답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노인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하는 것이 노인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노인들이 가장 편안하게 노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될 것을 기대한다.

제 9 장 실험목회현장의 적용과 평가

제 1 절 노인복지의 목회현장 적용

1. 창조적 의식의 변화

1) 변화목표

목회자의 섬김의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없이 귀를 기울이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다.[187] 목회자의 직무는 성도를 지배하는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다. 이러한 목회자의 인식이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목회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를 기대 할 수 없다. 브라질 이민자들을 위한 노인목회와 이를 적용하는 노인학교를 시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브라질 상파울루 거주 102인을 선정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이제 목회자 브라질 이민 노령자를 섬기는 자세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인복지 학교를 운영한다. 보편적으로 부르는 "노인학교"라는 이름을 지양하고 새소망 교회는 "새소망 노인복지 교회"라고 하였다.

우선 목회자 섬기의 자세를 가지고 이민 노령자를 섬기는 "새소망 노인복지 교회"를 시작하였다. "새소망 노인 복지 교회"를 통하여 이민 노령자들의 창조적 의식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의식개발을 위한 변화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노인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또 다른 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이 확신을 통해 나 자신의 존중함을 깨닫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신앙을 통해 기독교적 사랑을 함양토록 한다.

둘째. 노인들로 하여금 교회와 사회를 향한 봉사자가 되도록 한다. 이러한 봉사는 당연히 노인은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수혜자의 자리에서

---

[187]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24-126.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의 의식을 심어주도록 한다.

셋째.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섬기며 사회에 공헌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2) 행정 목표

브라질 이민 1세대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새소망 노인복지교회”를 설립하고 주 1회 40분의 예배와 2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노인 자신이 노인을 이해하는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그들의 의식이 변화되어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들이 되게 한다.

2. 실천적 행동의 변화

1) 변화의 목표

“새소망 노인복지교회”의 실천 목표를 세 가지로 정하고 노인들에게 이 비전을 공유하게 하고 함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한다. 그 실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강한 노인

둘째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강한 노인

셋째는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건강한 노인

이러한 실천 목표를 위해서 노인을 교육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므로 이들의 삶에 변화를 통하여 이 땅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한다.

2) 행정의 목표

노인복지 목회를 위한 설문 조사를 종합하고 분석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소망교회 안에 부설 “새소망 노인복지교회”라는 칭하는 노인학교를 개설한다. 이를 위하여 당회에서 이사진을 구성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학교를

개설한다. 격주로 한 주에 1회씩 노인학교를 개설한다.

3. 통합적 구조의 변화

1) 변화의 목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인 건강이다. 예수님은 통합적인 건강의 모범을 보이셨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188] 이와 같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성장해 가셨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은 유지되어 가는데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건강은 미숙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사회적인 문제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그리스도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일반인들의 도덕적인 수준의 이상을 보인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철저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행정 목표

"새소망 노인복지교회"에 입학한 노인들에게 매주 교육을 통하여 일깨워 주고 특별히 교역자들과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성경공부 교제와 1:1양육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분적인 성장이 아니라 통합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제 2 절 "새소망 노인복지 교회"의 시행

표 29 2009년 1학기 새소망 노인복지교회 강의 진행표

순	날짜	예배인도	교시	강 사	주 제	식사조
1	3.12	박재호목사	1	박재호 목사	개강예배와 강의	사라
			2	원철웅 장로	학사안내	
			3	박재천 장로	노인의 건강	

188 누가복음 2:52.

2	3.26	한홍국목사	1	박재천 장로	노인과 운동	에스더
			2	한홍국 목사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노인	
3	4.2	신창협목사	1	박재천 장로	노인의 약물 건강	마리아
			2	신창협 목사	즐거운 노래 부르기	
4	4.16	박재호목사	1	박재호 목사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루디아
			2	박재천 장로	물과 노인의 건강	
5	4.30	한홍국목사	1	고 영 전도사	즐거운 악기 배우기	사라
			2	박재천 장로	스트레칭으로 건강한 노인	
6	5.7	신창협목사	1	신창협 목사	자녀와 건강 대화법	에스더
			2	박재천 장로	고혈압과 노인 건강	
7	5.21	박재호목사	1	박재호 목사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노인	마리아
			2	박재천 장로	노인의 건강관리	
8	6.4	가을 자연학습(온천)				루디아
9	6.18	한홍국목사	1	한홍국 목사	행복한 노년생활	사라
			2	고영 전도사	노래교실	
10	6.25	박재호목사	1	박재호 목사	1학기말 예배와강의	에스더
			2	박명자 권사	즐거운 노래 시간	

표 30 2009년 2학기 새소망 노인복지교회 강의 진행표

순	날짜	예배인도	교시	강 사	주 제	식사조
1	9.10	박재호 목사	1	박재호 목사	개강 예배와 강의	마리아
			2	원철웅 장로	2학기 학사 안내	
			3	박재천 장로	노인의 건강생활	
2	9.24	한홍국 목사	1	한홍국 목사	이스라엘의 역사	루디아
			2	박재천 장로	치매방지 스트레칭	
3	10.1	신창협 목사	1	신창협 목사	브라질 이민의 역사와 전망	사라
			2	고영 전도사	건강 노래 부르기	
4	10.15	박재호 목사	1	박재호 목사	브라질에서 한국인으로 살기	에스더
			2	박재호 목사	치매예방과 건강체조	

<table>
<tr><td rowspan="2">5</td><td rowspan="2">10.29</td><td rowspan="2">한홍국 목사</td><td>1</td><td>한홍국 목사</td><td>행복한 노년의 삶</td><td rowspan="2">마리아</td></tr>
<tr><td>2</td><td>박재천 장로</td><td>유산소 운동</td></tr>
<tr><td>6</td><td>11.12</td><td colspan="4">봄 자연학습 (온천)</td><td>루디아</td></tr>
<tr><td rowspan="2">7</td><td rowspan="2">11.26</td><td rowspan="2">신창협 목사</td><td>1</td><td>신창협 목사</td><td>그리스도인의 경건</td><td rowspan="2">사라</td></tr>
<tr><td>2</td><td>박재천 장로</td><td>당뇨병 예방과 치료</td></tr>
<tr><td rowspan="2">8</td><td rowspan="2">12.3</td><td rowspan="2">박재호 목사</td><td>1</td><td>김동건 목사</td><td>종강예배와 강의</td><td rowspan="2">에스더</td></tr>
<tr><td>2</td><td>한홍국 목사</td><td>학습발표 및 종강안내</td></tr>
</table>

제 3 절 평가

공동체의 변화나 개인의 변화는 단기간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노인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그러나 성경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189]라고 말씀하면서 노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꿀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변화의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하여 교육하며 변화를 도모하게 될 때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 할 수 있다.

1. 의식 변화에 대한 평가

먼저 “새소망 노인복지교회”를 시작하기 전의 노인들은 설문조사에서 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소외로 인한 외로움의 문제였다. 그런데 “새소망 노인복지교회”를 2학기를 수료한 이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더니 상당한 수준의 의식이 변화된 것으로 조사, 분석되었다.

먼저의식에 대한 변화를 응답한 설문조사 내용이다.

[189] 요엘 2:28.

표 31 새소망 노인복지교회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소망노인복지교회 출석이유	빈 도 (명)	비 율(%)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12	7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46	30
배움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21	14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57	38
시간이 잘 가기 때문에	7	5
기 타	1	1
무 응 답	7	5
계	152	100

표 31은 "새소망 노인복지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152명의 노인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이 질문에 "새소망 노인복지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30%였고, 배움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14%,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노인이 38%이었다. 특별히 배움의 기회가 되기 때문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노인을 합하면 52%이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응답자의 반이 넘는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새소망 노인복지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노인들의 의식의 수준에 상당한 변화를 발견하는 대목이 된다.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과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때문과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이고 형이하학적인 응답자들도 42%에 이르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의식에 변화를 경험한 노인들이 전체 응답자의 52%가 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분석된다. 이로서 노인들의 의식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실천적 변화에 대한 평가

변화에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 첫째는 생각의 변화이고 둘째는 행동의 변화이다. 행동의 변화는 실천적 변화이다. 야고보서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190]고 했다. 이 말씀은 실천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새소망 노인복지교회"를 시작하면서 복지교회에 출석하는 노인들의 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두 학기를 마감하고 조사한 설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설문 조사에서 152명의 노인들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응답은 "새소망 노인복지교회"에 참석을 하여 그들의 의식이 변화되었고 의식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설문조사를 도표화 하였다.

표 32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참여 의향	빈 도 (명)	비 율 (%)
꼭 하겠다	57	38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	84	55
전혀 참여할 의향이 없다	2	1
무 응 답	9	6
계	152	100

표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에 응답한 노인들의 93%가 자원봉사에 어떤

[190] 야고보서 2:17.

방식으로든지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래서 "새소망 노인복지교회"에서는 다음 학기의 운영 시간표에 봉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하루 이상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노인들은 대접만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의식이 변화되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했고 실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노인들의 의식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구조적 변화에 대한 평가

한국 교회는 지난 100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부흥은 초기 선교사들의 순교자적인 선교를 통해서 기초가 닦여지고 많은 시련과 희생한 순교자들의 피와 정열적인 전도의 열정이 이루어 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놀라운 열정을 상실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오직 교회의 양적인 부흥에만 관심을 두면서 교인들은 계속해서 수평적인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곳 브라질 상파울루의 40여개의 교회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런 결과 교회는 이민 사회의 정신적인 중심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런 현실은 교회의 성장을 막는 암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상황에서 새소망교회의 "새소망 노인복지교회"가 노인들의 의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전체의 의식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이루었고 이것은 교회 전체의 구조를 섬김과 봉사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 하였다.

제 4 절 목회 능력 개발

1. 목회 능력 개발 시행계획

1) 목회자로서의 능력개발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191]라고 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미주 총회 헌법에는 목사를 이렇게 설명한다. "목사는 안수례를 베풀어 세운 성직이니 그 지위를 말하면 사도시대의 교회의 감독이요, 목사, 장로(행20:17-18)라 함과 동일하니 교회 내에서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직분으로서 광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복음의 사신이며(고후 5:20, 엡6:20), 교회의 사자이며(계2:1), 신앙과 진리의 교사이며(딤전 2:7, 딤후 1:11), 신약의 집사요 (고후 3:6), 복음의 전파자요 (딤후 4:5), 복음의 제사장이다(롬 15:16)"라고 말하고 목사의 임무는 "목사는 예배를 주장하고 설교를 하며 성경을 가르치며, 성례전을 집행하며, 장로와 협의하여 교회를 치리하고 교인을 심방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과부, 고아, 고독한 사람과 빈궁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192]

이 같은 개념규정은 구약과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목자의 기능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목자(시 80:1: 겔34:15)로 묘사되고 있으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다(요 10:11,14). 여기에 바울 사도는 목회서신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말씀 사역의 중요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두 청년 목회자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 부름 받은 사역자들에게 말씀 사역의 소중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이라 부르면서(딛 1:4) 목회자의 책무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것인데 이는 성도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딛 1:9). 그런 점에서 설교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시행된다. 첫째는,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함이요, 둘째, 그릇된 것, 특히 우리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것들에 대한 책망을 하기 위함이다. 권면으로서 목사의 메시지는 어떤 형태로든 특정한 결단을 목적하는 것이어야 한다. 힐트너(Seward Hiltner)는 목양적인 관점에서 목회의 기능을 다음의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1)치료(healing), (2)유지(sustaining), (3)안내(guicding)이다. 치료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목회의 기능이다. 유지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의 악화를

---

191 에베소서 4:11.

192 "목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미주성결교회 헌법* (로스엘젤레스: 미주성결교회 총회본부, 2008) 42-43.

방지하면서 현 상태를 보존해 주는 예방적 목회기능이다. 안내는 상담의 기능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목회의 기능이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예수의 삼중직 목회기능에 대한 명칭, 곧 제사장(치료자), 왕(유지자), 예언자(상담자)를 현대적 표현으로 전환시킨 것이다.[193] 이러한 목회적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 수립으로 교육하고 훈련한다.

첫째는 효과적인 목양 계획과 전략의 수립 시행과 평가 그리고 피드백을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한다.

둘째는 목회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주일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2시간씩 시간을 할애하여 다음과 같은 책을 탐독한다.

① 한스 큉.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78)

② 이형기,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서울: 한들, 2005)

2) 설교자로서의 능력개발

설교자의 가장 큰 무기요 방패는 무엇보다도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온전한 성경적인 해석의 능력이다. 그러하기에 더 많이 성경를 읽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좀 더 넓고 깊게 보는 복음주의 적 성경해석으로 시대적인 안목과 영성을 연마 해 나아가야 하겠다.

첫째는 성경문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설교를 통해 전달하도록 힘쓴다.

둘째는 전달되어진 설교를 통해 바로 이곳 삶에 현장에서 감동과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에 설교가 되도록 노력한다.

셋째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과 또 계층 간에 분리와 소외로 마음 아파했던 이웃의 심령들까지도 우리와 똑같은 한 공동체요 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가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목회자는 좀 더 교인들의 균형 잡힌 성숙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원론적인 설교에 관한 책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해 가도록 계획을

---

[193] 박한용 외 5인,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6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2), 278.

세웠다.

(1)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시간을 정하여 다음과 같은 책을 정독한다.

①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0)

② 다니엘 바우만, 현대 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98)

(2) 시대적인 안목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들에 설교를 듣거나 읽어봄으로써 그 본문에 대한 설교의 핵심과 요점 그리고 전달의도가 무엇인가를 연구해 본다.

(3) 본인의 설교를 녹음하여 연구팀원들과 함께 들어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보고 여기에 대한 논의와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해 나아간다.

3) 변혁자로서의 능력개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발전이다 없다는 말이 있다. 세상의 발전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 교회의 역사도 변화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로 발전해왔다. 교회의 변화와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변혁자로 오셨다. 오시어 형식만 남아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변혁시키셨다. 예수님께서 변화를 주도하실 때에 현실에 안주하며 종교적 안락을 즐기려는 기득권자들인 제사장, 서기관들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반대에 부딪쳤으며 이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변혁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구축한 틀 안에서 안주하며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실정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변혁을 시도하지 않으면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교회도 타락하고 썩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교회와 지도자는 변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변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도서 목록과 시간을 설정하고 탐독해 나아갈 것을 계획하였다.

① 방인혁, 한국의 변혁 운동과 사상논쟁 (서울: 소나무, 2009)

② 제임스 맥그리버 번스,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조중빈 역 (서울: 지식의 날개, 2006)

둘째는 목회자 자신이 변혁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성경에서 제시하고 요구하는 갇힌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와 그리고 병원이나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 아픔과 함께 동참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연구반 (Site Team)

1) 연구팀의 조직

이 모임은 뉴욕신학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위해서 Site Team으로서의 시작되었다. 이 모임은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기도모임, 성경공부 모임으로도 활동을 한다.

이 모임에서 노인목회의 기초 자료가 되는 설문 조사문항 확정 및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였고, 조사된 설문을 분석,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목회의 유능성 개발을 위한 목록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연구팀의 구성과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3 연구반원의 인적사항

이 름	직 분	연령/ 성별	학력/전 공	직 업
김 상 철	장 로	70대 남	대졸 / 영 문 학	상 업
조 영 숙	권 사	70대 여	대졸 / 교 육 학	상 업
고 규 식	집 사	40대 남	대졸 / 경 제 학	상 업
최 서 정	집 사	30대 여	대졸 / 신 학	주 부
원 경 수	집 사	30대 남	대학원졸 / 치 과	연구원
이 길 선	집 사	30대 여	대학원졸 /생명과학	연구원

2) 연구팀의 임무

① 연구팀은 연구 목회활동에 적극적인 자세와 참여를 한다.

② 연구팀은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자세로 활동한다.

③ 연구팀은 연구 목회 활동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협력한다.

④ 연구팀은 연구 목회활동이 끝날 때까지 영적 성장과 의식개발의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제 10 장 결론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 국민의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그리고 21% 이상일 때는 초고령 사회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남녀 모두 각 연령별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1960년 52.4세에 불과하던 전 국민의 평균수명이 1981년에는 66.2세 2000년에는 75.8세까지 늘어났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추계자료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2020년에는 80.7세, 2030년에는 81.5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200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 한국 이민자의 상황은 조국 한국의 상황보다 더욱 심각해서 이민사회는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의 숫자가 14%가 넘은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 자유주의 등과 같은 현상은 노인들이 적응하기에 힘들게 하였다. 가족제도의 변화와 경제적인 무능력, 역할 상실로 인한 무력감, 소외감, 고독 등에 빠지는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의 권위가 무너졌고 이로 인해 노인들은 고독과 소외감을 겪는 등 심리적 갈등으로 인해 고통이 심각해졌다.

전통적인 효사상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노인에 대한 무관심과 학대로 절망과 좌절 속에 아픔의 나날을 살아가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는 그 고통과 절망으로 자살을 하는 노인들의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 이민자들의 실상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노인을 위한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혜택도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언어소통의 면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고,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 대한민국 정부는 노인문제의 완화를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의 부족, 전문 인력의 부족, 지역적 특성의 차이, 시설부족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정부만의 힘으로는 노인들의 복지혜택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복지의 욕구충족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여러 단체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그 동안 성장과 전도에 전념하던 선교적 관심에서 지역사회 노인복지에 대한 발전과 봉사를 통한 선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통합하고자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가 노인문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을 기울여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고령사회에서 나타나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맡겨진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의 공동체이다. 교회가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복지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아갈 때 행복한 노인복지 국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브라질과 이민자 사회의 모습과 노인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학교를 개교하고 노인의 문제와 그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노인학교 개교하게 되었다. 이 "새소망 노인복지 교회"를 통해서 브라질 상파울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격주로 평균 170명 이상 모여서 준비된 프로그램을 소화하면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실제적으로 노인들의 의식수준이나 생활양식에서 많은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복지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

다음 몇 가지로 정리를 하였다.

첫째로, 브라질 이민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하겠다. 상파울루 영사관에서는 브라질 이민국의 통계만 받아서 행정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정확하지 못하다. 어느 이민사회에서나 합법적인 신분의 체류자도 있지만

그렇지만 못한 이민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현재 브라질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정확한 통계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이민사회에나 단체에 제공해주어야 이민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갖가지 연구나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교회의 인식전환이다. 노인복지 학교를 개설하는 노인들의 생활의 질 향상이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목적보다 교회의 성장과 연결되어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불신하거나 포기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것이 지양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셋째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봉사요원이다. 전문 강사 봉사요원도 시급히 해결할 문제이고 일반 자원봉사자의 지원과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히 정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로 노인들 스스로의 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노인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다면 젊은이들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인 스스로가 의식을 변혁하여 노인들도 사회의 봉사자로서의 변혁을 가져 올 때 건강한 노인이 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의 노인들은 험난한 이민의 삶을 살고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곤고한 세대이다. 이들 세대를 교회가 책임지지 않는 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소망 교회의 “새소망 노인복지교회”의 개설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노인복지교회”를 계속활성화해서 더 큰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ppendix

설문조사지

1. 귀하의 성별은? 남( ) 여( )
2. 귀하의 연령은? 60세-65세 ( ), 66세-70세 ( ), 71세-75세 ( ), 76세-80세 ( ), 81세-85세 ( ), 86세-90세 ( ), 91세-95세 ( ), 96세-100세 ( ).
3. 귀하의 종교는?
기독교 ( ), 천주교 ( ), 불교 ( ), 유교 ( ), 기타 ( ).
4. 기독교인이라면 귀하의 신급은?
세례 ( ), 학습 ( ), 구도(원입) ( ).
5. 기독교인이라면 귀하의 교회 직분은?
목사 ( ), 장로 ( ), 안수집사 ( ), 권사 ( ), 서리집사 ( ), 권찰 ( ).
6. 귀하께서 은퇴하시기전의 직업이나 현재의 직업은?
공무원 ( ), 회사원 ( ), 상업 ( ), 의사 ( ), 농업 ( ), 전업주부 ( ), 기술자 ( ), 기타 ( ).
7. 귀하의 교회 출석연한은?
1년 이하 ( ), 1년-5년 ( ), 6년-10년 ( ), 11년-15년 ( ), 16년-20년 ( ), 21년-25년 ( ), 26년-30년 ( ), 31년 이상 ( ).
8.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9. 귀하께서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학교 ( ), 노인자치회(노인회) ( ), 경로잔치 ( ), 양로원 ( ), 기타 ( ).
10.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인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 ), 건강문제 ( ), 재취업 ( ), 재혼문제 ( ), 여가선용의 문제 ( ), 소외와 고독 ( )
11. 노인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부터 번호를 써주세요.

생계보조 ( ), 의료혜택 ( ), 노인학교 운영 ( ), 노인회 조직 ( ),
양로원 운영 ( ), 전화상담 ( ), 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 ).

12. 귀하는 지금 노인으로서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아프다. ( ), 용돈이 부족하다. ( ), 할 일이 없다. ( ),
 너무 쓸쓸하고 고독하다. ( ), 자녀와 불편한 관계이다. ( ) 기타. ( )
13. 귀하께서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노인정에 나간다. ( ), 노인학교에 나간다. ( ), 낮잠을 주무신다. ( ),
 이웃집에 놀러간다. ( ), 신문이나 책을 읽는다. ( ), 아이들을 돌본다. ( )
 집을 지킨다. ( ) 기타 ( )
14. 귀하께서는 노인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15. 귀하께서는 교회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겠습니까?
 예 ( ), 아니오. ( )
16. 교육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교육을 받기 원하십니까?
 교양강좌 ( ),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붓글씨, 그림, 악기연주 등) ( ),
 건강을 위한 활동 ( ), 용돈마련을 위한 재취업 교육 ( )
17. 귀하께서는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한다면 귀하는 참석할 수 있습니까?
 있다. ( ), 없다. ( )
18. 노인학교에서의 강의 시간은 얼마만큼이 좋겠습니까?
 30분 ( ), 40분 ( ), 50분 ( ), 1시간 ( ), 1시간 30분 ( ),
 2시간- 3시간 ( ) 3시간 이상 ( )
19. 노인학교에 나오신다면 어느 시간대가 좋겠습니까?
 오전 10시-12시 ( ), 오후 2시-4시 ( ), 오전 10시-오후 2시 ( )
20. 노인학교 시간 오전 10시-오후 2시인 경우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있다. ( ), 없다. ( )
21. 노인학교에 한 번 나오시면 얼마나 머무를 수 있습니까?
 1시간 ( ), 2시간( ), 3시간 ( ), 4시간 ( ), 하루 종일 ( ).
22. 귀하께서는 노인학교에는 1주일에 몇 번 나오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일 ( ), 2일( ), 3일 ( ), 3일 이상 ( )

BIBLIOGRAPHY

1) 외국서적

Barrett, C. K.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국제성서주석* 제3권. 박재순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Binstock, Robert H. and Ethel Shanes (ed).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New York: Van Nosrtand Reinhold, 1985.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Carp, A., R. Peterson and P. Roelfs. *Adult learming interests and experiences, Planning non-traditional programs, An analysis of the issues for postsecondary education.* ed. K. P. Cross, J. R. Valley and Associat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88.

Cox, Harvey. *세속의 도시*, 김관석 외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7.

Faber, Heije. *Striking Sails: A Pastoral-Psychological View of Growing Older Our Society.* trans. Kenneth R. Mitchell Nashville. Tennessee: Abingdon, 1984.

Guitierrez, Gustavos. *해방신학.* 성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0.

Johnstone, Patrick. *세계기도정보.* 죠이선교회 역.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1994.

Kaplan, M. *The Use of leisure, in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Koenig, Harold G. MD. *Aging and God, Spiritual Pathway to mental health in midline and later yerars.* New York: The Haworth astrol press, 1994.

McClusky, Howard Y. *Education, Background prepared for the 1971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ashington D.C: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1971.

Morstain, B. R and J. C. Smart. *Reasons for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course, A multiplication analysis of group differences*. Adult Education 24 February 1974.

Morstain, B. R and R. S. Cafarrella. *Learning in adulthoo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1991.

Schlink, M. Basilea. *뉴에지 운동.*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3.

Siepierski, Paulo. *Missionarios Protestantes Extrangeiros no Brasil dos Primordios ao Congresso do Panama, Perspectivas Historicas.* Vol. Ⅱ. ed. C. Timoteo Carriker, São Paulo: Editora Mundo Cristao, 1993.

Walker, Willistone. *기독교회사*. 송인설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2) 한국서적

고양곤.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의 전망과 발전 방향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홍익재, 2001.

김규삼. *노인복지론*. 대구: 학문사, 1983.

김근홍. *한·독 노인복지 이해*. 서울: 학문사, 1999.

김만두 · 한혜경. *현대사회복지개론*. 서울: 홍익제, 1993.

김성순. *고령화 사회와 복지행정*. 서울: 홍익제, 1990.

_______. *고령화 사회와 복지정책* 서울: 홍익제, 1991.

김영화. *라틴아메리카의 선교상황과 선교전략, 한국교회 선교의 비전과 협력선교*. 서울: 도서출판 햇불, 1992.

김중은. *성경에서 본 노년과 노인에 대한 이해*. 서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2000.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8.

맹용길. *노인복지 목회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_______. *복지목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7.

박광준. *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세종출판사, 1999.

박상하 외 9인 공저. *사회복지개론*. 서울: 양서원, 2004.

박차상 김옥희 배창진 엄기욱 이경남 정상양.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2.

브라질 한인 상공회의소편. *브라질과 한국인*. 상파울루: 한인상공회의소, 1986.

송인규. *디아스포라의 현주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4.

신수식. *사회보장론*. 서울: 박영사, 1998.

아산사회복지재단. *노인복지연구*.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1985.

윤진. *성인 ·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이가옥.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이은식, *브라질*.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87.

이인길, *송암문학전집*. 상파울루: 한국인쇄소, 1983.

이인정 · 최해경.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서울: 나남출판사, 1997.

이정효. *기독교 노인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2.

이창희.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의 이론과 실재.* 서울: 홍익사, 1993.

이혜원. *노인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2000.

임춘식.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서울: 유풍출판사, 1992.

장인협 ·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4.

전경수. *브라질의 한국이민.*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최순남. *현대노인복지론.* 서울: 법문사, 2002.

최운실. *고령화 시대의 후기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서울: 홍성사, 199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0.

한성열.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 서울: 학지사, 2000.

황문규. *브라질 한국인 이민교회와 선교.* 서울: 예장 총회 교육부, 1983.

허정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서울: 협신사, 2000.

현외성. *교회와 노인복지.* 서울: 기독교감리회 원로장로회 전국연합회, 2001.

VARIG 항공, *BRASIL*. 서울: 브라질항공 VARIG, 1991.

3) 논문

강성일, "*브라질 한인교회의 선교실태와 그 전망.*" 장로교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고양곤, "*2000년대를 대비한 외국의 노인복지 동향.*"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김원이, "*교회의 노인복지 참여 방안 강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완기, "*브라질 선교를 위한 영매술에 관한 고찰.*" 총신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김활수, "*남미의 중심 브라질 선교.*" 총신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나미영, "*한국교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박기원, "*교회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박광선 *"A Critical Study of the Problems of the Elderly in Presbestery."*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변선희, *"노인욕구충족애 관한 복지개선방안."*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유충선, *"협력선교를 위한 브라질 한인 교회의 역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진덕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회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홍종각, *"노인문제와 그에 대한 교회 참여 방안."*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4) 간행물

강성철. "생명의 열매 기다리며." *상파울루 크리스찬신문.* 1995. 11. 18.

계만. "남미 한인교회의 정착 역사와 전망" *기독교사상.* 1988년 11월호.

고환규. "해외 한인 사회속의 교회와 선교" *기독교사상.* 1988년 11월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관련 통계.* 2002.

권영규. "노인복지에 대한 성서적 이해." *신앙과 교육.* 2000년 2월호.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2000.

김성철. "NGO 입장에서본 교회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기독교 사회복지.* 1999년 8월호. 부천: 평화사회복지연구소. 1999.

대한노인회. *노인복지 세미나 자료집.* 1980.

이은규. "노인목회를 위한 노년의 삶." *복음주의 실천신학 논총* 제4권 서울: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2002.

이은규. "성경에 나타난 노년의 생애 연구" *두란노서원 목회와 신학.* 1994년 5월호.

이해성. "한국의 노인문제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사회조사연구.* 제 12권 제 1호. 부산: 부산대학교. 1997.

이홍배. "고령화 시대의 노인목회." *복음주의 실천신학 논총* 제4권 서울: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2002.

임창복. "교회노인교육의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노인학교 교육과정 각성을 위한 세미나* 26회.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2000.

전요섭. "발달적 위기로서 노인의 심리 이해와 목회적 돌봄." *복음주의 실천신학 논총* 제4권. 2002.

최성재. “21세기 한국노인복지의 증진과제와 전망,” *제10회 전국사회복지대회 자료집*. 1999.

Carlos Rodrigues Brandao. “브라질 인디오.” *세계로 열린 창*. 1987년 8호.

Tiago de Melo. “대조의 나라.” *세계로 열린 창*. 1987년 8호.

5) 사전

고의장. *동아세계대백과사전15권 브라질*. 서울: 동아출판사.

네이버 백과사전. *브라질*.

류영기 편. *성서사전*.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1960.

박한용 외 5인. *기독교대백과사전 제 6권*, 서울: 기독교문사, 1982.

6) 인터넷 웹사이트

노인목회. "노인에 대한 신학적 이해 “ http://ask.nate.com/knote/view.html?num=432787 (accessed 24 November 200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http://cafe.naver.com/dokhakseo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741 > (accessed 30 November 2009)

보건가족부. “노인복지법” http://www.mw.go.kr/front/index.jsp (accessed 5 November 2009).

새소망교회. “새소망교회 교회연혁”, 새소망교회 홈페이지 http://www.ssmbr.org/ (accessed 5 June 2009).